교과서연구

제 45 호

2005. 8

차 례

권두언

교육과정·교과서의 온라인 관리/정강정 ……4

특별 기획

국어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탐구 과제/이인제 …6

국어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천과 검정제의 발전 방향/윤여탁 …14

국어과 교재의 핵심 요소와 구성 방향/최영환 ……21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고성욱 ……28

즐거운 경험으로서의 국어 교과서에 대한 기대/권오주 …35

현장 교육

국어 학습 도서 활용 수업의 실제/박영우 ……42

논 단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 연구와 역사 교과서/신주백 ……47

나의 제언

철학이 있는 교과서를 기다리며/이호종 ……53

- 발행인 / 한병천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박삼서, 노희방, 강환동,
  이춘식, 윤광원, 홍후조
- 편집협력위원 (시·도 교육청)
  윤명숙(서울), 박경옥(부산),
  김형경(대구), 최성환(대구),
  최종우(인천), 이경임(광주),
  김창수(대전), 박홍수(울산),
  이덕진(경기), 김영각(강원),
  손영철(충북), 김종권(충남),
  이강엽(전북), 이재춘(전북),
  임을빈(전남), 김상수(경북),
  차혜숙(경남), 강덕수(제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연 재

베트남의 교육 현황과 교과서 제도/이견호 ……57

편수 행정의 발자취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어떻게 했나?/최병모 ……62

쑥돌을 왜 화강암으로 쓰나?/이규석 ……68

단 상

교과서, 편집자가 넘어야 할 산맥/조준형 ……73

탐 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17) – 최태경(두산동아 사장) ……78

자 료

교과서 연구 단체/일본의 교과서 연구 센터 ……82

- 연구재단 소식 ……84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85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86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87

* 표지 글씨 : 신두영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교육인적자원부는 현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차원의 개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가 고시하지만, 그 운영 주체는 초·중등 학교 선생님과 학생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에는 학생과 교사 및 사회 여러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수시 보완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식과 정보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른 내용을 교과용 도서에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 통신의 총아인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효율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빠르게 교육과정의 수시·보완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교과서의 온라인 관리

■ 글 /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 사업의 추진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이고, 온라인 체제의 전담 기관은 한국학술정보원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일에 자문과 협조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검정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이다. 그야말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관련된 전문 기관이 총동원되어 있는 셈이다. 한국학술정보원은 사업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 요구 분석을 하여 최종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의 일정대로라면 금년 9월에 오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은 해당 영역의 업무를 분석 지원하며, 시스템 설계에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관리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신속히 수렴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지원하고, 심의 결과와 개선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정된 인원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개통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고, 이 의견 자료를 수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해당 결과를 학교 현장에 전달하여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어떤 서비스가 있는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종합 관리의 서비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게시판, 참여 마당, 온라인 세미나, 교육과정 DB, 출판사 홈 페이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참여 마당은 일반 이용자, 즉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오류 내용이나 개선 사항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구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오류나 개선 사항에 대해 절차나 방법을 몰라 토로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관련 연구물, 교육과정과 해설서, 연수나 홍보 자료 등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이 분야의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검색 기능이 강화되면 다양한 의견이나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보 통신 환경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오늘날의 정보 통신 환경을 유비쿼터스(Ubiquitous)라고 부른다. 즉,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통신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현되면서 일반인들은 한층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종합 관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실제적으로 수정·보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대하게 밀려오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일괄 위탁을 받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전교과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적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년 11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급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작업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9월에 온라인 체제가 개통되면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견들에는 민원성인 것도 있을 것이고, 현장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일반인에게는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고, 교육과정 담당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일이 조직화되지 못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둘째, 유관 기관이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 수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정보를 조정하고 창출하는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정을 보완·개선하는 작업은 초·중·고등 학교의 교육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이 작업에는 국가·사회적인 요구와 학문적인 동향 등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수정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적절하게, 그리고 수시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획기적으로 업무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할 시기이다.

교과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도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연

특별기획

국어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탐구 과제

■ 글 / **이인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Ⅰ. 머리말

현재 국가 교육과정 개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유지해 오던 '주기·전면' 개정을 '수시·부분' 개정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보완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물론, 개정의 범위가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으나 어쨌든 부분 수정 정책에 따른 개정이다. 그 직접적인 동인은 사회 환경의 변화, 그 중에서도 주5일제 수업 실시이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등 학교까지 적용된 시기는 오래 되지 않았다. 2000년에 초등 학교 1, 2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고등 학교 2, 3학년까지 완전 적용되었으니 말이다. 고등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교육과정의 적용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적용 실태 분석 등의 기초 연구 결과 드러난 사실이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학습량이 많다고 인식하는 교육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면 국어과 교육과정도 개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때 교육과정 문제에 대한 원인의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과정 개정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회 환경의 변화라는 교육과정 개정 사유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국어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의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삶을 보다 윤택하게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탐구 과제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복 이후 일곱 차례나 개정해 온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를 검토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탐구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교육과정 개정사의 비판적 검토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국어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해 온 지난 60년 동안 국가 교육과정을 여섯 차례나 개정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10여 년을 주기로, 1980년대 이후에는 5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그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교육과정 개정의 이념 지향과 지표가 달랐고 개정 내용도 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개정하였는지는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사의 개략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945년 광복 이후 곧바로 적용한 '교수 요목' 시기에는 한글 보급과 문맹 퇴치를 중대한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이 시기에 강조한 국어 교육 목표인 '국어 사용 능력 신장', '문화 창조', '국민 정신 함양'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1955년에 제정 고시한 제1차 교육과정은 도구로서의 언어 기능을 내세웠다. 즉, 언어의 기능(機能)을 사회 형성, 인간 형성, 문화 전달의 기능을 구분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963년에 개정 고시한 제2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유지되다가 1973년에 개정 고시한 제3차 교육과정이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위해 국민적 자질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사용을 사고의 차원으로 올려 강조하고, 국어 교육을 통한 가치관 교육을 강조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3차 교육과정은 생활 교육과 기초 교육의 일환으로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강조하였으며, 반공과 도덕 교육을 밑바탕으로 하는 인간 형성과 국민 자질 함양을 위한 차기 교육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에 개정 고시한 제4차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특성 명료화와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1) 언어 기능 신장의 강화, (2) 문학 교육의 강화, (3) 언어 교육의 체계화, (4)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의 네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 교육과정은 국어 교육의 내용 영역 구분에 커다란 변화를 꾀하였다. 즉, 제3차 교육과정까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분해 온 교육 내용을 '표현·이해'로 묶고, '언어'와 '문학' 영역을 추가하여 이른바 국어 교육 내용의 3영역 체제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표현·이해 / 언어 / 문학 세 영역[1]을 대등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어과가 마치 이질적인 요소가 혼효된 단순 복합 교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87년에 개정 고시한 제5차 교육과정은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두고 제4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3영역 체제(표현·이해 / 언어 / 문학)를 6영역 체제(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 언어 / 문학)[2]로 체제로 변화시켰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은 국어 사용 기능을, '언어'는 국어 문법(grammar)과 올바른 용법(usage), '문학'은 작품의 이해(comprehension / understanding)와 감상(appreciation),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는 영역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영역 구분과 관련된 쟁점의 해소가 아니라 '도구주의', '미국식 기능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1997년에 개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지식 사회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도래와 당시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고등 학교 2, 3학년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과정의 체제와 개념에 변혁을 꾀한 교육과정으로 아직도 진행형 교육과정이다.

제5차 교육과정이 완전히 적용되기 이전인 1992년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1) 국어과 교육과정 구조의 체계화, (2) 목표 체계의 구조화, (3)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4)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 제5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국어 교육의 내용을 6영역(말하기/듣기/읽기/쓰기/언어/문학)으로 구분한 제5차 교육과정의 것을 계승하면서, 그 이유로 국어 교과가 상호 보완적이면서 층위가 서로 다른 세 영역이 통합된 교과라는 점을 들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실정에 맞게(다른 말로 하면 절충하여)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영역 구분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능주의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이 '내용 체계'를 구안하여 제시한 것은 교육과정 개발사에 획기적인 일로 기록하여 마땅할 것이다.

1997년에 개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화·지식 사회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도래와 당시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신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고등 학교 2, 3학년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과정의 체제와 개념에 변혁을 꾀한 교육과정으로 아직도 진행형 교육과정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1)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2)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3) 교육 내용의 사회적·개인적·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4) 국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 구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국어 교과의 성격 규정, 국어 교과 목표 체계의 일원화, 교육 내용 정선 및 내적 구조화 지향, 교육 내용의 학습 범위와 수준의 구체화,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개선, '방법'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등 일곱 가지를 개정의 중점으로 설정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새로 도입하는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의 문제를 영역 구분 문제 해결보다 우선하여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content standards)'과 그것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performance standards)'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초로 개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어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

야 할 것'으로서의 '내용'은 언어 기능, 언어 사용 양상 및 변이, 텍스트에 대한 지식, 언어와 문학에 관한 지식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이다. 이러한 관점은 제 6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기본 방향을 승계하되 교육 내용을 '본질', '원리', '태도', '실제'의 넷으로 구분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와 논의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광복 이후 국어 교육의 실천 근거였던 교육과정(교수 요목~제 7차 교육과정)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정해 왔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평가 없이 개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제 1차에서부터 제 5차 교육과정 시대까지 우리 나라 초·중등 학교에서는 중요한 교육 설계도를 준비하지 않고 교육을 실천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설계도는 교과서였으며, 완벽한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진단은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도 음미해 보아야 할 평가이다. 더구나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철저한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Ⅲ. 국어 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개정 역사를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어' 교과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인가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각기 달랐다. 제 3차 교육과정과 제 4차 교육과정처럼 국어 교과가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로 인식된 적도 있었다. 제 4차 교육과정은 표현·이해(언어 사용 기능), 문학, 언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분류 및 차원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대등하게 나열함으로써 여러 요소가 단순 혼효된 교과가 바로 국어 교과라는 인식을 고착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고착화는 제 5차 교육과정이 제 4차의 3영역 체제를 6영역 체제로, 제 6차 교육과정이 제 5차의 6영역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제 4차의 3영역 체제를 국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으로 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지만 국어 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어 교과의 정체성은 '국어' 교과가 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는 교과인가라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확립해 갈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취하든 국어 교육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학습자라는 점과 이들의 학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정(또는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소로 하면 관점의 공유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3)]

국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문학, 매스미디어, 일상적 텍스트를 학습함에 따라 쓰고, 말하고, 부호화하고, 보고, 듣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산출한 텍스트를 학습하고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적합한 텍스트를 산출해 봄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의미 구성 능력)을 향상(enhance)시켜 가야 한다. 즉, 학생들은 개념화하고, 상상하고, 감상하고, 경험하고, 회의하고, 반성하고, 결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또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반영

국어 교과는 국어 교과만의 독자성이 충분한 교육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내용 교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 학습의 결과로서 향상된 국어 사용 능력이 '학습의 도구', '사고의 도구', '지식의 수용과 생산의 도구', '문화 창조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도구 교과의 성격도 있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련시키며,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발달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화에 대해 말하고, 영향을 미치고, 공유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텍스트의 힘(power of texts)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국어 교과의 일차적인 사명이다.

또,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반성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기 위해 설명, 해석, 묘사, 정의, 의견의 제시, 추론, 예측, 요약, 비교나 대조, 예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언어 세계를 창조해 가야 한다. 그들은 '국어'나 '문학'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말하고 듣고 읽고 써야 하기 때문에 '국어'를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이 학생들의 능동적 산출(active products)과 다른 사람이 산출한 언어 자료에 대해 능동적 반응(active response)을 강조해야 하는 것도 그들이 언어 사용의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 유산에 대한 감각, 각기 다른 문화와 시기에 특수한 텍스트에 가치 매김된 특수한 텍스트, 텍스트 유형/장르와 저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다양한 장르와 연계된 언어 체계의 조정·경험이 가능한 기능(skills), 자신의 문화에서 조작된 것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와 신념, 특히 언어 사용 상황에 따른 언어의 기능(function of language)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어 교육의 교육 내용이고, 이 교육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향상된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능력은 민주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국어 교과는 국어 교과만의 독자성이 충분한 교육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내용 교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 학습의 결과로서 향상된 국어 사용 능력이 '학습의 도구', '사고의 도구', '지식의 수용과 생산의 도구', '문화 창조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도구 교과의 성격도 있다. 이처럼 내용 교과이자 도구 교과의 성격이 함께 있는 국어 교과는 교과 중의 교과이자 학교 교육의 중핵 교과(core subjects)가 된다.

Ⅳ.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탐구 과제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역사는 교육과정 개정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반성의 자료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것도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개정하던 관행 등에 대한 반성을 촉구

한다. 직관에만 의존하는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교육과정을 개정한 결과로서 교실의 국어 수업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선결해야 할 탐구가 아주 많다.

첫째, 국어 교육의 내용과 이를 학습한 결과인 국어 사용 능력 수준에 대한 연구이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아직 국어 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문적인 연구도 없다. 그저 교육과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편찬한 교과서가 있으니, 교과서 학습이 끝난 뒤에 평가 활동만 하면 국어 교육을 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행 기준(performance standards)도 없이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한다. 기준도 방향도 없다. 교육 내용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왜 특정 교육 내용을 특정 학년에서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도 없다. 이를 연구하지 않는 한 바람직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교육 내용의 적정화 기준과 원리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국어 교육 '내용'의 개념부터가 문제이다. 예를 들면, '내용'이 지식인가, 기능인가, 태도인가 하는 문제부터 '활동, 사고, 문화' 등이 내용인가 하는 문제, 더구나 교과서의 글 내용이 국어 교육의 내용인가 하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관점도 논의 맥락도 다양하지 않은가. '내용'을 '지식'으로 본다고 해도 어떤 지식이어야 하는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이루는 일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개념이 혼란스럽다는 점 이외에도 '교육 내용의 적정화'가 학습 요소의 축소를 뜻하는지 등의 기준과 원리가 없다.

셋째, 학습량 판단의 준거에 대한 연구이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학습량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 집단보다 교사 집단이 훨씬 높다(초등 학교 : 교사 10.6%, 학생 5.1% / 중학교 : 교사 22.3%, 학생 7.2% / 고등 학교 : 교사 18.3%, 학생 7.9%)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교과서라면, 그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편찬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논의의 초점이 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제를 넘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특히 학년별 내용을 배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학습량 판단 준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 학습량 문제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해 두자.

넷째, 학습자에 대한 연구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변화를 의도한 교육 계획이다. 그래서 항상 들을 수 있는 말이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말로는) 그럴듯하나 교육과정 개정 실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학생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성과가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기 쉽고 듣기 좋은 말로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도 학습자 수준(학습 수준, 성취 수준)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학습자가 특정 학습 내용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예를 들어, 학습자의 어휘 지식과 그 질적 수준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기초 연구 성과도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 솔직해지자. 그 자료도 없지 않은가? 학습자의 성취 기준(또는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처럼 난감한 일이 또 있겠는가? 이것은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연구일 것이다.

다섯째, 학습 자료 또는 제재인 언어 자료[4]의 난도(難度) 결정 준거에 대한 연구이다. 언어 자료의 난도 문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어쨌든 문화 유산의 하나인 고소설 『홍길동전』을 읽고 토론하고 문학의 장치가 어떻게 사건 전개에 관련되는지를 왜 중학교 3학년에서 학습해야 하는지, 중학교 1학년에서 학습하면 왜 안 되는지, 그 근거를 알아야 한다. 굳이 수준별 학습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사와 학생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나누는 국어 교실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라도 그 준거를 마련해야 한다.

Ⅴ. 맺는말

지금까지 제시한 탐구 과제를 가까운 시일 안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면 많은 국어 교육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합의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다. '숙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전제해야 하며, '합의'는 신념 변화를 포함한 열린 마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이 전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만 명이 모여 이야기한다 해도 형식만 숙의일 뿐 의미가 없다. 직관을 판단 근거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직관을 객관적 사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교육과정에 관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과 '성과'에 대한 사실 자료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축적해야 한다. 즉,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교육과정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이 사업에 충실을 기할 때 직관과 사실을 조응시켜 가면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는 국어 교육 전문가인 학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이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육 행정가, 사회 인사가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 이들의 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 예컨대 사회인들의 '토론 및 발표 능력'이 아주 부족하므로 이 능력 향상을 요구했다고 하자. 이는 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이자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점들이 국어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의 학습을 중심축에 놓고 교육과정을 고민해야 할 이유일 것이다.

국어 교육의 사명은 학습자가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산출한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 능력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산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 능력은 학생들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삶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핵심 능력이므로, 그리고 학생들은 창조적 국어 사용자여야 하는 까닭에 그렇다.

참고 문헌

- 교육부. 『고등 학교 국어 교사용 지도서(상)』.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 이인제·정구향·송현정·유영희·문영진·조용기·이재기·민병곤.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인제.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탐색』(한국초등국어교육 제 23 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3.
- 이인제·정구향·천경록·이도영·유동엽·박종훈·정소휘·서유경.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홍후조.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서울 : 문음사, 2002.

1) '표현·이해' 영역은 생각과 느낌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다양한 경험들을 창의적으로 조직하여 새로운 사태와 장면을 상정하는 능력, 질서화된 사고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등을 길러 주기 위한 영역이고, '언어' 영역은 국어 사용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극히 기초적인 지식을 주어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고등 기능을 발달시켜 주며, 국어의 중요성 인식,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국어 발달에 아바지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영역이며, '문학' 영역은 문학 작품으로 통하여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세계나 상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발달시켜 주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영역으로, 문학 이론에 바탕을 둔 작품의 분석과 해석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켜 주며, 예술로서의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정준섭, 1995 : p.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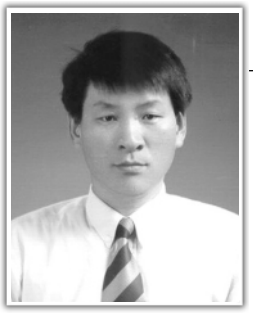
2)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의 체계상 일관성, 현장 교사의 요구, 국어과 수업 방법 개선을 이유로 6 영역으로 구성함이 무난하다고 합의하였다(정준섭, 1995 : pp. 125~126)고 하나 그 '무난함'이 쟁점이 된다.

3) 그 동안 국어 교육 학계는 (1) 국가가 정한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하고, (2)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3)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의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국어과 교육이라 하고(교육부, 1993 : p. 2), 이를 학교의 국어과 교육을 포함한 광의의 국어 교육과 구분해 왔다. 그러나 이 구분법은 '국어과 교육'이 '국어 교육'에 포함된다는 점만 설명할 뿐 국어 교과가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과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4) 학계에서는 이를 '텍스트'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왔으나 이 용어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마땅한 말을 찾기도 쉽지 않아 '언어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어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천과 검정제의 발전 방향

■ 글 / **윤여탁**(서울대학교 교수)



Ⅰ. 국어 교과서 검정제 전환의 의의

한국 근대 교육의 역사는 대략 120여 년[1] 정도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교육은 근대화의 역군(役軍)을 양성하고, 주체성을 지닌 인간을 육성해야 하는 크고 작은 책무를 감당해야 했다. 또, 한국의 근·현대는 반봉건(계몽, 개화), 반외세(반제)라는 두 가지 과제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었으며, 이 명분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삶과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받는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근대 교육은 근대 계몽기,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 한국 전쟁, 개발 독재 시기, 민주화 투쟁기와 같은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국가 단위의 통일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놓였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에 따라 국가 기관이 교과서 개발을 주도하거나 국가 기관의 검정과 인정 절차를 거쳐서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특히, 국어 관련 교과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민족 문화의 계승이라는 차원[2]에서 국가 기관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가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도 개인적, 비국가적인 차원의 노력 덕분에 인간 교육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가 달성되기도 했다.

또, 그 동안 국어 관련 교과서는 많은 측면에서 변화도 보여 주었다. 즉, 교과서의 외형이 혁신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독본(讀本) 중심의 독서(읽기) 교과서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학, 국어 지식 등 6가지 영역의 언어 활동(活動) 중심 교과서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교과서가 차지하던 절대적인 권위(權威)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다.

특히, 지난 제5차 교육과정기 이후의 교과서는 혁신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보여, 그 이전 시기의 국어 교과서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국어 관련 교과서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을 수용하여, 그 동안 금기(禁忌)의 영역으로 묶여 있던 제재들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을

최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정(개선)을 논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국어 관련 교과서도 그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넘어 새로운 방향과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 지향적 태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 상징적인 징표가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국정 교과서의 발행 제도를 검정제로 바꾸어 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재들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사로 대표되는 공급자 중심의 활동보다는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활동들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정(개선)을 논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국어 관련 교과서도 그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넘어 새로운 방향과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 지향적 태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 상징적인 징표가 국가 기관이 주도하는 국정 교과서의 발행 제도를 검정제로 바꾸어 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提高)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어 교과서 발행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할 경우에 예상되는 장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현대 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국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 현대 교육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지향(指向)하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국어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천

근대 계몽기 이후 우리 근대 교육은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명심보감(明心寶鑑)』과 『사서삼경』을 통해서 한자를 학습하는 서당에서 서양의 근대적인 학문을 교수·학습하는 학교라는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학문 체계와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말의 표기 수단인 한글은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어, 새로운 서양의 학문 체계를 학습하게 하는 도구어,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전수하는 문화어라는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근대의 학교는 '국어'라는 과목을 제정하여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국민소학독본』(1895년), 『소학독본』(1895년), 『신정심상소학』(1896년), 『초등소학』(1906년), 『고등소학독본』(1906년) 등과 같은 '소학'이라는 '국어' 교과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3] 이렇게 근대 학문으로 위치를 잡기 시작한 국어는 우리 근대사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모국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선어'라는 외국어로 취급되는 시련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국어'라는 교과목과 교과서의 명칭을 회복하지만, 남북 분단,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 운명에 따라 서

로 다른 이념을 담아 내야 하는 이질화의 길을 걷게 된다.

더구나 이와 같은 민족사의 비극은 '국어' 교과를 국가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浮上)시켰으며, 국어 교과서의 제작에 국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었고, 다른 국어 관련 교과서 역시 국가 기관의 통제를 받는 검정제로 발행되었다. 이처럼 근대 이후 국정 또는 검정제로 발행된 '국어' 교과서의 변화 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 국어 교과서의 변천 과정

시 기	학교급 간	교과서 목표	발행 구분
근대 계몽기	총 33 권(박붕배 / 강윤호 25 권 + 국어교육연구소 5 권 + 미확인 3 권)		자유 발행
일제 강점기	초 등	4 종 19 권	관본, 검정
	중 등	7 종 22 권	관본, 검정
	기 타	인가 11 종 + 금서 20 종	
미 군정기	초등 학교	국어(5)	관본, 검정
	중학교	국어(2), 문법(3)	관본, 검정
	고등 학교	국어(3), 문학(1), 말본(2)	관본, 검정
정부 수립기	초등 학교	국어(4)	관본, 검정
	중학교	국어(3), 문법(2)	관본, 검정
	고등 학교	국어(1), 문법(2)	관본, 검정
전시기(UNKRA)	초등 학교	국어(3)	관본, 검정
	중학교	국어(2), 문법(1)	관본, 검정
	고등 학교	국어(1), 작문(1)	관본, 검정
제 1 차 교육과정기	초등 학교	국어(1)	국정, 검정
	중학교	국어(1), 작문(23), 문법(8)	국정, 검정
	고등 학교	국어(8), 국문학사(1), 작문(38), 고전독본(1), 말본(7), 문법(10)	국정, 검정
제 2 차 교육과정기	초등 학교	국어(3)	국정, 검정
	중학교	국어(1), 작문(33), 문법(37)	국정, 검정
	고등 학교	국어(16), 국문학사(13), 고전(58), 말본(10), 문법(51)	국정, 검정
제 3 차 교육과정기	초등 학교	국어(1), 초등글씨본(2), 쓰기본(1), 글씨본(2), 쓰기(2), 글본(2), 글짓기 / 글짓는 생활(5)	국정, 검정
	중학교	국어(1), 작문(33), 문법(26)	국정, 검정
	고등 학교	국어(9), 국문학사(3), 작문(52), 고전(72), 말본(2), 문법(69)	국정, 검정
제 4 차 교육과정기	11 과 38 권		국정, 검정
제 5 차 교육과정기	8 과 70 권		국정, 검정
제 6 차 교육과정기	21 과 70 권		국정, 검정
제 7 차 교육과정기	40 과 80 권		국정, 검정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 교과서는 근대 초기 자유 발행제로 시작되었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국어'는 관본 또는 국정으로, 다른 국어 관련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었다. 다만, '문법' 교과의 경우 초기에는 검정제로 발행되었지만,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에는 한 기관이 주도하여 국정제나 다름없는 단일본으로 발행되었다. 즉, 우리 근대 이후 국어 관련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제라는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교과서의 제작, 발행에 국가 기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제였다.

Ⅲ. 국어 교과서 검정제의 당위성

현재 국정으로 발행되고 있는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최근에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경우에서는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에 비하여, 중등 학교의 경우에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중등 학교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과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견하고 있다.[5)]

이 부분에서는 국어 교과서 검정제의 장점을 중심으로 국어 교과서 검정제 전환의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어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어 교과는 도구(사용)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교과이다. 이 중에서 전자는 정확성, 적절성, 효율성 등과 관계된 특성으로, 국어의 규범적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창의성, 사고력, 독창성 등과 관계된 특성으로, 국어 사용의 문화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는 전자가 중시되겠지만, 자국어로서의 국어 교육에서는 전자보다도 후자의 특성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어 교과서는 단일본의 국정이었던 관계로 이 같은 양면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편찬 주체의 주관적인 관점이 깊이 작용하는 편향적인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학교급 간에 따라 이 두 특성의 비중을 다르게 반영하면서 위계(초등 학교는 의사 소통 능력, 중학교는 국어의 정확한 사용, 고등 학교는 창의적 언어 사용 등)를 고려한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마다 이 두 가지 국어 특성의 무게를 다르게 반영하는 교과서가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의 국어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국어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은, 우선적으로 교과서의 품질을 외형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다른 측면에서는 창의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내재적인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교과서는 외형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할 경우, 경쟁에서 유

국어 교과서의 검정제로의 전환은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다양성 확대, 교육의 질적 제고, 교육 현장의 요구 반영이라는
현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국어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고, …….

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과서 제작자(저자, 출판사)들은 교과서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 경쟁 체제는 교과서의 외형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교수·학습 활동이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교과서를 선택할 때 교과서의 외형적인 틀보다는 내용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교과서 채택시 실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습자를 대신하여 학부모, 학교 운영 위원들이 관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택하게 되면서, 외형적인 품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수·학습의 자료나 활동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의 내재적인 품질을 개선하는 데 무게 중심이 놓일 가능성이 많다.

셋째로,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여 여러 권의 국어 교과서가 발행됨으로써 그동안 독점 체제로 개발되는 국어 교과서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개발과 보급 과정에서 국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와 수혜자인 학생(학부모) 등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다양성,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 사회의 특성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국어 교육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살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의 실현에도 기여하게 된다.

물론, 이 다양성이 통일성(일관성, 체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다양한 계층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들의 경연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어 교육도 이제는 이 같은 다양성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전환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즉,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단순한 능력으로부터 미래를 개척하고 혁신해 갈 능동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하는데,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검정제 전환이 국어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효과는 다른 교과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국어 교육 연구자나 실천자들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 현장의 숨은 교재 개발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를 발굴하여 육성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지난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기에 국정 교과서는 물론 검인정 교과서 개발에 많은 교사들이나 교육자, 출판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국어 관련 교과서의 내적인 질을 많이 향상시켰다는 평

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참여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의 채택에서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교육 현장의 많은 교육 전문가를 발굴하여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효과는, 교사들의 교재 연구의 활성화를 고무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와 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어 교육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교사 자신들의 경험이나 필요를 반영한 국어 교과서를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의 구체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교과서는 큰 거부감 없이 수용된다. 이처럼 국어 교과서의 검정제로의 전환은 실질적인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어 교과서의 검정제로의 전환은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다양성 확대, 교육의 질적 제고, 교육 현장의 요구 반영[6]이라는 현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국어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교육에서 민간 주도의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현대 사회의 교육적 지향과 논리에도 부응(副應)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국어 교과서 발행 제도의 발전 방향

우리 국어 교육계는 교과서의 검정제나 자유 발행제에 대해서 이미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몇 년 동안 교과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교과서 발행 제도의 전환을 꾸준히 준비하여 왔다. 더구나 현대 사회와 현대 교육은 자유화, 민주화, 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기에는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여 시대와 사회, 교육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7]를 참조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검정제 교과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국어 교과서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국의 국어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체험이나 연구를 통하여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개선하는 효과, 즉 타산지석(他山之石),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국어 교과서 검정제는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중학교와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를 우선 검정제로 전환하고, 이 경우에 생기는 여러 장점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등 학교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도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 검정제 전환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도 많이 있거니와, 기초 교육 단계는 국민 교육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신중을 기하여 검토와 연구, 경험을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는 단계를 넘어, 보다 자유스러운 교과서 발행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인정제에서 자유 발행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그것이다.

과도기에는 이와 같은 교과서 검정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적 전환 방식은 학교급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도 있으며, 국어의 다른 교과목들을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경험을 축적하면서 시행할 수도 있다.

끝으로, 국어 교과서의 검정제를 학교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발행 제도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교과서 발행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자 미래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여 밝히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연

참고 문헌

- 김만곤,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교과서연구』 제 41 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 김혜정, 「근대 이후 국어과 교재 개발에 대한 사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13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 박남화,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허와 실」. 『교과서연구』 42 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6.
- 유학영 외, 「국정 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보고서, 2003.
- 윤여탁. 「시의 이데올로기와 교육」. 『시 교육론 — 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1996.
- 윤여탁. 「한국의 근대화와 국어 교육 — 근대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2005. 5.
- 이삼형. 「중학교 교과서 체제 변화에 대하여」. 『국어교육학연구』 4 집. 국어교육학회, 1994.
- 조난심 외. 「초등 학교 교과서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보고서, 2000.
- 조난심 외. 「초·중등 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보고서, 2004.
- 한명희.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 모색」. 『교과서연구』 제 41 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 허강 외.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보고서, 1999.
- 홍후조. 「현행 교과서 제도는 공론화 과정으로 개선」. 『교과서연구』 제 41 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

1) 한국의 근대 교육은 서양의 학교 제도와 학문 체계의 도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그 시점은 1883년 원산에 세워진 '원산학사'와 1895년에 발표된 고종의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로 볼 수 있다.
2) 윤여탁. 「시의 이데올로기와 교육」. 『시 교육론 — 시의 소통 구조와 감상』. 태학사, 1996, pp. 199~204.
3) 윤여탁. 「한국의 근대화와 국어 교육 — 근대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2005. 5.
4) 김혜정. 「근대 이후 국어과 교재 개발에 대한 사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13 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pp. 403~435. 이 글의 435 면에 있는 표를 재정리한 것임.
5) 조난심 외. 「초·중등 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보고서, 2004. pp. 50~85. 이 연구의 설문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어 교과서 검정제 전환에 대해서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51.7%였으며, 중등 학교의 경우에는 찬성 의견이 65.8%였다.
6) 조난심 외. 위의 글, pp. 89~91.
7) 허강 외.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보고서, 1999. p. 67.

특별기획

국어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국어과 교재의 핵심 요소와 구성 방향

■ 글 / **최영환**(경인교육대학교 교수)

Ⅰ. 국어과 교재 구성을 위한 선결 조건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일이다. 국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의 국어 사용 방법은 국어 교육에서 가르칠 내용을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추상화된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최근에는 국어 사용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르치는 방법도 교육학자나 교과 교육학자들이 개발한 교수·학습 모형을 국어 교육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키고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좋은 교육 내용을 잘못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르치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잘못된 교육 내용을 좋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르치면 교육은 실패하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육을 위해 교재를 만들고, 실제 교실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국어과 교육의 목표이다. 국어과 교육 시간에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은 이후에 이어지는 국어 교육 각 단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일단 목표를 결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결정한다. 교육 내용은 유능한 국어 사용자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한 결과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 결과는 곧바로 학습자가 학습할 사고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실 상황에서 교수·학습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 과정에서는 학습해야 할 사고 과정, 즉 학습 내용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

록 하기 위해 어떤 교수 과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어과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교재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Ⅱ. 국어과 교재 구성의 핵심 요소

교재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가지 기본 요소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들 요소가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국어 교육학 개론(최현섭 외)에서 교재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범주화한 것은 교재 구성의 순서 또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범주에 포함된 구성 요소라는 것은 서로 대등하지도 않고 유기적인 관계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1)]

① 목표: 학습자가 학습할,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② 내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전략
③ 언어 자료: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 제재
④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한 행동

교재에는 이상의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실제 국어를 가르칠 때 교재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1. 목표 설정 방식

국어과 교재에서 '목표'는 교육과정에 의해 결정되고, 교육과정 상세화 작업을 거쳐 각 단원에 배분되기 때문에 교재의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교재 구성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일단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교급별, 학년별 목표에 따라 단원별로 목표를 세분하여 할당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상세화 작업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체계표와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상세화 과정을 근거로 단원별 목표가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과정 상세화 작업은 반드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즉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국어과 교육의 모든 목표는 교육과정 설계에서부터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과정 상세화 과정 및 단원 배정 과정에서도 역시 철저한 연구를 해야 한다.[2)]

2. 내용 선정 방식

일단 목표를 결정하고 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즉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단원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즉 학습자가 학습할 전략은 국어를 사용하는 절차나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재는 이러한 전략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단원 안에 전략을 제시하도록 지면을 할애하였으나, 전략이 아니라 선언적 지식을 제공할 뿐이다. 초·중·고 교재의 어느 부분에도 전략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없으며, 교사용 지도서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기는 어렵다.

교재에서 각 단원의 내용은 곧 '기능의 수

행 절차', 즉 전략이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에서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3. 언어 자료의 선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언어 자료인 제재는 학습자의 동기나 흥미, 발달 단계에 적합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교육적 지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 국어과 교재의 제재가 어떤 근거로 선정되었으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언어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학습자용 교재에는 이러한 언어 자료 선정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교사용 지도서에는 언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히 언어 자료의 내용이나 필자, 출전을 설명하는 일차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다른 제재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될 중요한 기준이나 절차, 다른 제재로 대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다루어야 한다. 언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은, 교재 집필 과정에서 언어 자료 선정의 근거와 다른 언어 자료로 대치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재의 언어 자료는 기본적인 설계 없이 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활동의 구별

국어과 교육에서 활동은 크게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활동의 유형

교육의 구조	학습 활동 유형	교수·학습과의 관련성
아는 것	학습 도구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교수·학습의 도구
	(선언적) 지식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교수·학습의 목표
	전략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교수·학습의 과정
	전략의 정리, 수정, 변형	
하는 것	모범 언어 자료에서 전략 확인	
	언어 자료로부터 원리 탐색	
	전략의 단계적 연습	
	전략의 적용	

(1) '아는 것'을 위한 활동

'아는 것' 중에서 '지식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은 국어과 교육 안에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각각은 국어과 교육 안에서 대등하지 않다.

① 학습 도구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활동

일반적으로 국어과 교재에는 언어 자료가 포함되는데, 이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자료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를 배운다고 할 때, '한옥의 구조'가 언어 자료로 선택되었다면 '한옥의 구조'에 실린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은 모두 '학

습 도구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활동'이 된다. 과거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처럼 오해했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글을 다루었고, 국어과 교수·학습은 모든 교과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처럼 행하였다. '한옥의 구조'를 아는 것은 국어과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국어과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그 자체가 국어과 교육 안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 활동을 위해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학습의 도구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활동이 국어과 교육의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② (선언적) 지식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활동

'아는 것' 중에서 '언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어과 교수·학습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국어과 교육에서 지식 학습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하기 위해 한글이 창제된 배경, 한글과 다른 문자의 비교, 한글의 운용 원리 등을 설명한 글이 선정되었을 경우,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글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은 외형적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을 위한 활동이다. '활동'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판정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본질을 파악하여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앞의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활동이다. 언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이라고 해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어떤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따라 교수·학습의 도구도 될 수 있고, 교수·학습의 목표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잘 구별해야 한다.

③ 전략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활동

국어과 교육에서 제공하는 언어 자료 중 일부는 '전략'을 담고 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어 사용 방법'을 설명한 언어 자료를 다룰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교수·학습의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교수·학습의 목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원리를 담은 지식으로서 이후에 전개될 교수·학습 과정의 일부가 된다. 물론, 이 지식만으로도 국어과 교육의 목표 일부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국어 사용 능력을 위한 첫 단계일 뿐이다. 이 단계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예를 들면, 글의 제목을 붙이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언어 자료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제목을 붙일 글이 언어 자료가 될 수 있고, 제목을 붙이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 언어 자료가 될 수 있다. 전자는 ①의 '학습 도구로서 언어 자료'로 교수·학습을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글일 필요는 없다. 사실 학습자가 잘 아는 글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 반면에 제목을 붙이는 방법을 설명한 글 속에 들어 있는 지식은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 자체로서는 가치를 갖지 못하고, 제목을 붙이는 활동에 동원하여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④ 전략의 정리, 수정, 변형 활동

국어과 교육에서 학습자는 교사나 사회로

부터 전략을 배워 국어 사용 과정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국어 사용 전략을 탐구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국어 사용에 관해 학습자가 스스로 탐구한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동시에 학습자가 국어 사용 과정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늘 탐구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면 학습자 스스로 이미 학습한 전략을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활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이 고도의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2) '하는 것'을 위한 활동

'하는 것'을 위한 활동 역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교수·학습 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① 모범 언어 자료에서 전략 확인 활동

일단 전략을 학습한 후에는 모범적인 언어 자료에서 그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전략이란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으로부터 독립된 추상적인 것이므로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략이 가장 잘 적용된 언어 자료를 제공하고, 언어 자료를 보면서 전략의 각 단계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어를 사용할 때 전략을 활용하는 안내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제목을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제목을 붙이는 방법은 전략이 되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하는 다양한 제목을 살펴보면서 전략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② 언어 자료로부터 원리 탐색 활동

이 활동은 학습자가 익숙한 언어 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어 사용의 규칙을 발견하고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국어 사용 전략을 가르치면 시간이 절약되고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국어 사용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전략의 단계적 연습 활동

전략을 학습한 다음에는 이것이 실제 국어 사용 기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략은 지식의 일종으로 '아는 것'을 충족시키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육의 절반밖에는 완성하지 못한다. 나머지 절반은 '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어과 교육에서 전략을 학습하고 나면 이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를 설정하여 연습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목을 붙이는 방법을 배우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씩 적용하여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어진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제목을 붙이되, 제목 붙이는 방법의 종류나 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 때의 언어 자료는 학습자가 모르는 새로운 글보다는 학습자가 잘 아는 언어 자료라야 한다. 그래야 전략 중심의 활동이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잘 모르는 자료를 제공하면, 교수·학습의 상

당 부분이 목표와 무관한 활동, 즉 '아는 것'의 '학습 자료로서의 글 내용 확인'에 소모되기 때문이다.

④ 전략의 적용 활동

전략을 단계적으로 연습한 것만으로는 국어 사용 능력을 학습했다고 할 수 없다. 전략이 학습자의 국어 사용 과정에서 자동화되어야 비로소 국어 사용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글을 쓴다.'와 같은 목표에 대해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글을 써 보자.'와 같은 활동을 지시할 경우, 이 활동은 전략 적용 활동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략 적용 활동인지 아닌지는 이 활동 앞에 이루어진 지식 학습이나 활동에 의해 판별할 수 있다.

전략이 자동화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의 적용 활동은 세분된 전략을 통합하여 함께 운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국어 사용 상황과 가장 근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학습자가 이미 단계적으로 학습한 전략을 활용하게 해야 한다.

Ⅲ. 새로운 교재 구성의 방향

교재와 교수·학습 모형은 모두 교육의 두 축을 중심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교재의 '아는 것'과 '하는 것'은 교수·학습 모형의 '아는 것'과 '하는 것'에 각각 대응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교재를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교수·학습 과정에 투입할 때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교수·학습 모형의 기본 형태를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재 구성도 이것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즉, 교수·학습의 형태를 교재에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형태의 교재의 기본틀이 생긴다.[3)]

【표 2】 교재의 유형

국어과 목표 유형	교재의 유형	교수·학습 기본형
지식 학습	지식 학습형	아는 것
기능 연습	기능 연습형	아는 것 ➡ 하는 것
원리 이해	원리 이해형	하는 것 ➡ 아는 것
전략 개발	전략 개발형	아는 것 ➡ 하는 것 ➡ 아는 것
원리 적용	원리 적용형	하는 것 ➡ 아는 것 ➡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최소한 다섯 가지 형태의 교재 기본틀이 만들어진다. 현재 국어과 교육을 위한 모든 단원이 모두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교재의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어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교재에 포함되는 활동 유형 여섯 가지를 특성에 맞게 고려하면 다음의 표와 같은 교재의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다음의 【표 3】에 따르면 교재 유형에 따라 포함되는 활동 유형이 다르다.[4)] 최근까지 국어과 교재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았고, 교수·학습의 기본형도 고려하지 않았

【표 3】 교재 유형별 활동 유형

교재의 유형	교수·학습 기본형	활동 유형
지식 학습형	아는 것	(선언적) 지식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기능 연습형	아는 것	전략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모범 언어 자료에서 전략 확인
	하는 것	전략의 단계적 연습, 전략의 적용
원리 이해형	하는 것	언어 자료로부터 원리 탐색
	아는 것	전략의 정리
전략 개발형	아는 것	전략으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모범 언어 자료에서 전략 확인
	하는 것	전략의 단계적 연습, 전략의 적용
	아는 것	전략의 수정, 변형
원리 적용형	하는 것	언어 자료로부터 원리 탐색
	아는 것	전략의 정리
	하는 것	전략의 단계적 연습, 전략의 적용

다. 그리고 활동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모든 활동을 대등한 것으로 나열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실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고려하여 교재를 구성하게 되면 단원에 따라 어떤 활동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교재 구성의 의도를 교수·학습 상황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재 유형과 활동 유형은 실제 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재 안에서 각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교재 제작 과정에서뿐 아니라,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매우 융통성이 있는 유형이다. 연

참고 문헌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대백과 사전』. 하우동설, 1998.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 출판, 1999.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 용어 사전』. 배영사, 1995.
- 최영환.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체계화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 9 집. 국어교육학회, 1998.
- 최영환.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2003.
- 최현섭, 최명환, 노명완, 신헌재, 박인기, 김창원, 최영환.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1996.

1) 여기에서는 교재와 교수·학습 모형의 관계를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재 구성의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편의상 단순화하여 제시한다.

2)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상세화, 단원별 목표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재 집필 지침, 교사용 지도서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체계는 교육과정, 교과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3) 교수·학습의 둘째 형태인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수·학습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교육적인 가치, 국어과 교육에서의 효용성을 생각하면 교재의 기본형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본다.

4) 여기에서는 '학습의 도구로서 언어 자료의 내용 확인 활동'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활동은 교수·학습의 목표나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을 경우, 국어과 교육의 목표로부터 이탈할 위험이 크다.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 글 / **고성욱**(서울 동의초등학교 교사)

Ⅰ. 들어가는 글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우리 나라 근대 교육 역사는 이미 백 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근대 교육은 계몽기를 거쳐서 일제 시대, 미 군정기와 6·25 전쟁, 개발 독재기와 민주화 투쟁기 같은 급격한 사회 변혁에 따른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광복 이후, 우리 나라는 국가가 마련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교육과정의 배경 아래 그 목표를 이루는 교육을 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과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연결하여 주는 매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과서였다.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교수 방법을 제공하기도 하며,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기능도 담당하였다. 교육과정은 그동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나 개편되었는데, 그 때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과서도 제작되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교실의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교과서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런 점은 교실 수업의 이상적인 구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 바람직한 모습의 교과서 개발이 교실 수업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나라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을 간단히 정리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이어질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Ⅱ.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

1. 교수 요목~제 5 차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과정은 시대 가치와 정신을 담아 내는 그릇이다. 따라서, 시대가 진보하면 그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변화하는 것이다.

교수 요목기 이래 제 4 차 교육과정까지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국가 발전에 알맞게 변화하며 진보하였고, 교육과정 목표의 구체물인 교과서도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개편이 바로 '국어 교육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 4 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교과서를 새로 만들었다 하여도, 담아 놓은 글만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뿐 체제나 내용면에서는 거의 바뀐 것이 없었다. 국어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그저 '독본 중심'의 읽기 교재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들에도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언어 활동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고, 교과서에도 이런 여러 언어 활동에 대한 언급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저 꾸밈새를 위한 구색 갖추기에 지나지 않았다. 제 4 차까지의 국어 교과서는 단지 여러 문종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독본이었고, 그에 따라 학교의 국어 교육도 교사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글을 읽고, 문종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등 국어학과 국문학의 지식 전달 활동이 거의 전부였다.

제 4 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체제가 1~2 학년과 3~6 학년이 달랐다. 1~2 학년 교과서는 통합 교과 운동의 영향으로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 내용을 아우르는 '통합 교과' 방식을 택하였는데, 국어 교육의 내용 부분만 떼어 놓고 본다면 역시 독본 형태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3~6 학년에서는 '국어'라는 명칭의 단독 교과로 이루어졌지만 역시 독본 형태의 교과서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제 5 차 교육과정에 따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초등 학교의 국어 교과서는 적어도 외형면에서는 거의 경천동지할 정도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교과서의 수가 한 권에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세 권으로 늘어났고, 학습 활동 내용도 '언어 사용 기능의 향상'이라는 교육과정 목표를 구체화하는 여섯 가지 언어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처음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바로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화를 시도했던 제 5 차 교과서는 독본 중심의 교과서라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내용의 표현 방법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이런 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바로 제 6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이다.

2. 제 6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도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역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세 종류로 기획하였다. 최종적으로 1~4 학년은 세 권, 5~6 학년은 '말하기·듣기·쓰기, 읽기' 두 권의 교과서로 개발하였다. 제 6 차의 교과서는 제 5 차 교과서의 아쉬움을 반성하며 개발하였는데, 그 발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국어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필요성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제 5 차 교과서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독본의 한계를 넘는 '목표 중심의 단원 학습'을 의도하여 연구, 개발하였다. 물론, 이러한 교과서

제7차 국어 교과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교과서에 구현하려고 노력하였고, 학습량은 축소하며, 교사와 학생의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설정한 것이 대단원 체제의 도입인데, 각 대단원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언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편성하였다.

체제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균형 있게 학습하게 하여 전인적 언어 활동 기능의 성장을 도와 주려고 애쓴 것, 교실 수업을 변화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목표별 단원 구성을 의도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또, 제6차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의 국어과 교육을 의도하였는데 '결과 중심'의 국어 교육관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

그렇지만 제6차 교과서에도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세 권의 교과서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듣기 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균형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말하기·듣기 교과서는 '말하고 듣는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로서, 이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말할 내용의 선정과 조직, 표현 전달, 비언어적 표현 등이 말하기의 목적과 상황 및 청자 요인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듣기의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내용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차의 말하기·듣기 교과서는 말하기의 표현 전달에 지나지 않는 발음 학습 비중이 너무 커서 균형감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것이 수업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단위 차시 학습 목표 도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역기능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읽기 교과서는 1~3학년의 경우. 단원 학습을 위한 도입과 제재 학습, 이어지는 마무리 학습 활동에서 유기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읽기 능력 신장을 의도하는 교과서라면, 당연히 마무리 학습 활동에서 제시된 자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4~6학년에서는 단원명과 제재명이 일치하는 문제, 단원 학습의 제시 목표와 읽기 제재를 통한 학습 활동 문제들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전 교과서에서도 지적되었던 한계가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쓰기 교과서 역시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쓰기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개발한 결과, 제5차 교과서에 비하여 한결 진보하였고, 학생들의 글 쓰는 능력 신장을 돕는 데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 비슷한 유형의 학습 과제가 매 학년, 매학기 반복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식상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과,

4~6학년의 경우 지면의 한계로 일부 단원은 차시당 네 쪽으로 제한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목표 중심의 교과서 체제가 갖는 한계이기도 한데, 이러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었다.

3.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제6차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적용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으로 개발한 제7차 국어 교과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교과서에 구현하려고 노력하였고, 학습량은 축소하며, 교사와 학생의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설정한 것이 대단원 체제의 도입인데, 각 대단원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이라는 네 가지 유형의 언어 사용 목적에 따라서 편성하였다. 그리고 국어 지식 교육을 체계화하였고, 교과서 간의 횡적, 종적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단원 구성 방식과 교수·학습 방법도 다양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 언어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쉼터'를 설정하여 열린 교과서관을 지향하였다. 제7차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구체적인 단원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대단원(마당)과 소단원 체제의 단원 구성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한 '실제' 범주의 국어 사용 목적을 대단원(교과에서는 '마당'으로 표현함.) 구성의 기본 원리로 하여 대단원(마당)과 소단원을 병행하는 체제로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제7차 교과서에서 대단원 설정의 원리로 삼은 국어 사용 목적은 '정보의 이해 및 전달, 비판적 분석 및 설득, 문학 작품 감상 및 창작, 친교적 반응 및 표현' 등이다. 이에 따라 각 교과서에는 4~5개 대단원(마당)과 각 마당별로 2~3개의 소단원을 두는 체제로 편찬하였고, 각 교과서의 마당과 소단원 수를 동일하게 하였다.

(2) 목표 중심의 단원 구성

교과서 각 단원은 목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단원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을 재해석하여 추출하였고, 각 교과서의 단원은 이 목표 성취에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대단원에 대단원 도입 학습면을 2쪽으로 구성하여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총체적으로 조감하게 하였다. 각 소단원의 차시 학습 또한 목표 중심의 언어 사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교과서 간 횡적 연계성과 교과서별 종적 관련성 강조

각각의 교과서 각 단원은 횡적 연계성과 교과서별 종적 관련성을 강조하여 구성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연계성이란, 각각 교과서 각 단원의 제재 및 언어 기능에 관련된 요인의 연계성이다. 이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제재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언어 기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4) 단원 학습 내용과 과정의 명시적 제시

단원 학습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단원 학습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한 학년별 내용을 근거로 필수 학습 요소를 정선하여 제시하였고, 가능하면 학년, 학기 간 수준의 차가 드러나도록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였다. 또, 각 학습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

보다 나은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제일 먼저 충실한 기초 연구와 개발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교과서 개정 작업에서 매번 기초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나마 현행 제7차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이루었지만,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구성하였다. 즉, 탐구 과정, 문제 해결 방법 등 학습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 지적인 기반 위에서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을 확충시킬 수 있게 구성하였다.

⑸ 단원 학습 내용 전개의 다양성 추구

학습 내용은 차시 단위로 제시하고, 차시별 제재를 각각 다르게 선정, 구성하였다. 이는 같은 제재를 여러 시간 반복 학습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극소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 상황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언어를 의미화하고, 의미를 언어화하는 언어 사용 경험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단원 학습 내용의 특성에 적합하게 국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 모형을 반영하여 단원을 구성함으로써 획일적인 단원 구성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단원의 학습에서 원리 학습과 적용 학습이 유기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⑹ 학습 내용의 실제성 강조

학습 내용의 실제성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언어 사용 기능은 구체적인 언어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 계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습 내용의 실제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에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Ⅲ.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발전 방향

1. 국어 교과서 발전 방향에 대한 쟁점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어 교육계에서 논의되는 쟁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국정과 검인정'에 대한 논란이고, 다음으로는 '국어 교과서의 권 수'에 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교수·학습 형태, 교과서의 학습량, 수준별 학습에 관한 쟁점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교과서 검정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본다.

2.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의 검정제

국정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개발한 한 종의 교과서를 전국의 모든 초등 학교가 사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초등 학교의 경우는 일부 인정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국어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교과서가 국정이다. 반면에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저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 심사를 받은 교과서이다. 검정 교과서는 한 교과목에 여러 종의 교과

서가 개발되므로 학교에서는 출판사가 다른 여러 교과서 중 한 종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며, 학교나 지역에 따라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국정제와 검정제는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장단점 비교

교과서 제도	장 점	단 점
국정 교과서	•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이념 구현에 적합 • 자원의 낭비와 출판사 간의 과다 경쟁 방지 • 교과서의 안정적 생산, 공급 가능 • 교과서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	• 교육 과정 해석의 획일화 초래 • 교과서 질 향상에 한계가 있음. • 교과서 집필과 참여가 일부 인사에게 한정됨.
검정 교과서	• 교육 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 •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 탈피 • 자유 경쟁을 통해 교과서 질 향상 • 단위 학교에 교과서 선택권 부여 • 다양한 교사, 전문가 집단의 교과서 집필 참여 가능	• 미숙한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 이념적 갈등, 교육적 혼란 초래 가능성 • 교과서 발행비 증가, 정부 부담 증가 • 교과서 검정 제도의 미비로 양질의 교과서 편찬 및 채택상 한계

※ 조난심. 국정 교과서 검인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05. p. 192.

초등 학교의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교육 대학교 교수나 출판 관계자 이외에는 교사나 학부모, 교육 전문직 종사자 등 모든 집단에서 찬성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어과의 검정화에 대한 반대의 비율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보수성을 반영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더 높은 것 같다.

교과서 검정제는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과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은 제도이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민주화된 선진 국가를 이루어 나가며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유연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제도이다. 단지 현 시점에서는 다소 이르다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인 것 같다.

3.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차기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 정책은 국정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보다 나은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제일 먼저 충실한 기초 연구와 개발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수많은 교과서 개정 작업에서 매번 기초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나마 현행 제7차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이루었지만,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또, 교과서 개발 정책과 과정도 합리적이지 못했을 뿐더러 담당자와 참여 인사들의 사명감만 강조하는 한심한 개발 여건은 비웃음이 나올 정도이다.

다음으로 교과서 연구 개발 체계의 전문성 확립 필요성이다. 극도로 짧은 개발 기간을 설정하여 급조된 위원회의 주도 아래 개발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 목표 도달을 위한 과학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준거가 필요하다. 결국, 이런 문제는 담당 연구 인력의 절대 빈곤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해결을 위한 대전제는 교과서 개발에 따른 절대 예산의 확보를 위한 정책 담당자들의 대오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서의 상시 수정·보완 체제의 확보와 교과서의 개념도 인쇄된 자료를 넘어서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인식 지평의 확장도 필요할 것이다.

Ⅳ. 맺는글

필자는 제5차 교육과정 이래 세 번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 작업에 직접 깊이 참여하여 집필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광복 이후, 여섯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나가면서도 국력의 발전 속도를 앞서 가는 꾸준한 진보를 이루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학교 교육에서 국어 교과서가 차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희생과 자부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결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눈부신 변화를 동반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 경쟁력 있는 세계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인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종합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면 우리 초등 국어 교육은 훨씬 눈부신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 학교 국어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 200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과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200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정 교과서 검인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05.

특 별 기 획

국어과 교과서의 변천과 발전 방향

즐거운 경험으로서의 국어 교과서에 대한 기대

■ 글 / **권오주**(천안 동여자중학교 교사)

Ⅰ. 들어가는 말

이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삶 속의 모든 문화 현상은 국어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수많은 자료 속에서 가치 있는 교수·학습의 자료를 선정하고 조직,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일은 본질적으로 교사의 몫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과서는 교육 활동을 선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교육과정의 구현체이고, 대부분의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를 잘 만드는 일은 곧 국어 교육의 방향을 잡는 키가 된다 하겠다. 이에 광복 이후 우리 교과서의 모습과 함께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교과서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본다.

Ⅱ.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걸어온 길

1.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이 시기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나 지도 요소에 따라 단원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단원명－제재명－학습 목표와 학습 방향－제재글－익힘 문제'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각 단원의 목표 및 학습 방향, 학습의 의의를 명시한 점이나 다른 시기의 교과서에 비해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재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학생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만하나, 모든 단원이 읽을거리 중심의 독본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1)]

2.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와 내용상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는 제재로 선정된 글들의 주제를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인해 단원 내의 제재들 사이의 관계가 제1차에 비해 긴밀하지 못하다. 제재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지도 영역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익힘 문제의 내용도 실제적인 언어

활동이 아닌 내용 이해에 대한 질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교육과정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된 지도 방법이 단원 구성 체제에는 고려되지 않아 그 실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일임되어 있다.

3.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이 시기의 교과서의 단원은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가치 덕목이나 학습 활동 결과 심어 주고자 하는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내용 영역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읽을거리 중심의 독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각 제재글 뒤에 '공부할 문제'를 제시하여 그 제재글의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시기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나 제재의 선정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지도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문제'에 제시된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은 상당 부분 형식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다. 또, 학습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아닌 제재글 주석 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고 있다.

4.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 4 차 교육과정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과서에는 지식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단원 구성은 문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문학 장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원의 체제는 첫 면에 단원명과 제재명, 그 다음 면에 단원의 학습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해설, 학습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 시기 교과서의 구성 체제상의 특징은 제재가 끝난 다음 문법과 작문 학습을 위한 별도의 제재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원 구성 방식이나 체제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읽을거리 중심의 형태에서 못 벗어나 언어 기능의 균형 있는 지도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5. 제 5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이 시기의 교과서 단원은 영역별, 목표 중심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동안 읽기 활동시에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말하기, 듣기 활동과 언어(문법)와 작문이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되었다. 단원 체제는 '단원의 길잡이－제재를 통한 학습 활동－단원의 마무리'의 뼈대를 갖추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음성 언어 영역이 독자적인 단원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실제적인 언어 사용의 활동이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원 구성 체제 및 학습 활동의 전개 방식에서는 이런 취지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제 6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 6 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의 통합 절충을 통해 그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교과서는 제 5 차와 마찬가지로 전체 체제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 체제는 '단원의 길잡이－소단원－학습 활동－단원의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게 하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단원의 구성 체제, 단원 학습 내용 조직 및 전개, 단원 학습 제재, 단원 학습 활동의 구조화 등의 면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창의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단원의 마무리에 제시되는 질문에서 보듯 활동의 과정에 대한 지도는 빠져 있다. 결과만을 제시해 주는 학습으로 실제적 국어 사용 기능 신장이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7. 제 7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제 7 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체제의 문제는 심화 학습 과정의 제시 방식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제 7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경우, 본문 및 학습 활동을 마친 후 자기 점검을 통한 보충 및 심화 과정을 하도록 학습 요소를 설정하였는데, 이런 제시 방식은 단원의 모든 요소를 동일하게 학습하던 기존의 단원 전개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 7 차 국어 교과서의 체제는 종래의 독본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목표 기능을 길러 줄 수 있는 단계별 활동 자료의 형태로 바뀌었다. 영역을 통합하여 유사한 교육과정 내용을 묶어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또 읽기, 문학 단원을 '국어'로, 말하기, 듣기, 쓰기, 국어 지식은 '생활 국어'로 분책한 것은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제 7 차 교과서는 수준별 학습,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 중심 학습을 지향하는 제 7 차 교육과정의 정신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동안 많은 부분에서 그 부족함이 지적되어 왔다. 현장에서 제 7 차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짚어 봄으로써 우리 교과서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Ⅲ. 제 7 차 교과서에서 아쉬운 점들

1. 단원 구성 방식의 문제

(1) 일관성, 연계성의 결여

1, 2, 3 학년, 또 1, 2 학기의 교과서가 연차적으로 개발되다 보니, 각 학년, 학기 간의 내용상 연계감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많다.

생활 국어 2-1 '1. 즐거운 언어 생활'에서는 이야기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보고 '운수 좋은 날'의 이야기의 전개에 따른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말해 보는 학습 활동이 전개된다. 그런데 국어 3-1 '6.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5) 운수 좋은 날'의 학습 활동에는 사건에 따라 김 첨지의 달라지는 감정을 그래프로 그리는 활동이 있다. 2 학년 생활 국어의 학습 활동은 책을 읽은 것을 전제하고 제시한 활동으로 보이지만, 많은 시간을 요하는 3 학년 단원의 학습 활동을 중동만 잘라 제시한 느낌이 있다. 이는 마땅히 3 학년 읽기 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이다. 이런 중복은 전체 교과서를 거시적으로 조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 국어의 단원들은 어떤 생각들을 근거로 하여 설정되었는지, 이 단원은 이전의 학습과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없다. 단원 설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2) '생활 국어'와 '국어'의 분책과 영역 중심의 단원 설정

'국어'와 '생활 국어' 분책의 필연적 이유가 없다. 국어 사용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긴밀하게 상승 작용을 하며 총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각 기능이 분절적으로 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영역 중심의 단원 설정은 언어 기능의 기계적인 반복일 뿐이므로 학습 의욕을 저하시킨다. 일정한 틀을 제시한 후에 생활 속에서의 말하기와 듣기를 떠올려 보고, 말하기와 듣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든지, 자기 대화

를 떠올려 보고 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는 활동(생활 국어 1-1 말하기와 듣기)과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루하고 효과가 없는 활동을 억지로 만들어 낸 것 같은 부분이 많다. 그런 결과로 실제 수업에서 생활 국어는 국어 지식과 관련된 단원을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다루거나 일부분을 생략하고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2. 구성 체제의 문제

(1) 단원의 길잡이

단원의 길잡이는 학습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강조될 경우에 글을 읽기 전부터 그 목표에 매달리게 되어 자연스럽고 총체적인 읽기가 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습 목표를 설정한 까닭,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한 간단한 안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 생활 국어의 경우 소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 전략이나 지식을 단원의 길잡이에 요약해 놓은 듯한 부분이 있어 방법에 대한 지식만을 지루하게 강조하는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

(2) 읽기 전에

'읽기 전에'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소단원 학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부분이라고 볼 때, 단원의 내용과 동떨어지거나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배추의 마음'(국어 3-1)이라는 시를 학습하기 전에 배추밭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 과연 관심을 유도하거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시를 맛보고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될까? 기계적,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만화나 학생의 글, 드라마의 장면 등 좀더 생생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읽기 중 활동

날개(본문 이외의 좌우 여백을 활용한 읽기 중 학습 내용)와 같은 읽기 중 학습 장치는 학생들의 읽기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교화되어야 한다. 날개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읽기 후에 해야 할 학습 과제에 해당하는 것이 가끔 있다. 그 내용이 너무 많거나 부적절한 경우 자연스러운 읽기를 방해할 수 있다.

(4) 자기 점검

'자기 점검'의 문항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이후의 심화·보충 학습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음의 학습과는 관련 없이 결국 점검만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말하기, 듣기, 쓰기 단원의 경우, 그 실제적인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다.

(5) 보충·심화

제 7차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보충·심화 학습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바이다. 보충 학습 제재가 심화 학습 제재보다 더 어렵다든지, 선정된 제재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수준별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상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6) 기 타

'생각넓히기'의 위상이 어정쩡하다. '학습 활동'에서의 '적용 학습'이나 '보충·심화 학습'과 변별되는 점이 없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구성 체제 전체가 산만하게 느껴진다. 또, '한자 공부'는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다. 문학과 읽기 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어휘, 속담이나 한자성어 등의 국어 지식 등을 배치하는 것

이 어떨까 싶다.

생활 국어의 국어 지식 부분은 탐구 학습을 통해 그 개념이나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는데, 그 내용의 불충분으로 제대로 된 탐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결국, 주입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내용 선정의 문제

(1)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제재가 많다. 글의 수준이 너무 어렵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지문(3-1 '현대 사회와 과학', '독서와 사회·문화의 만남'), 너무 낮은 수준의 지문(1-2, '단풍잎'), 학습자의 삶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들의 정서에 맞게 선정된 글(1-1 '새 봄'이나 2-2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그 교육적 적합성이 의심되는 글(1-1, 5. 삶과 갈등의 보충·심화, '벙어리 삼룡이')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2) 전략 및 방법의 기계적인 반복을 위한 지문

과정 중심의 학습은 원칙적으로 추구되어야 옳다. 그러나 정해진 전략을 미리 제시하고 그 과정을 세분하여 이를 반복해서 따라하게 하는 학습 방법은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 또, 국어 2-2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는 읽기 전략의 습득을 목표로 설정된 단원인 것 같은데, 설명문 읽기의 심화·보충 학습 자료로 한두 페이지 들어가는 정도는 무방하겠으나 대단원 하나로 독립시켜 학습을 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교사들은 이 단원을 가르치면서, 읽기 방법을 위해 표지, 삽화, 도표 등의 외적 요소만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제시된 교과의 내용과 관련시켜서 읽게 할 것인지 당황해한다. 국어 교육의 정체성에 혼란이 느껴지는 지문이다.

(3) 시의성이 떨어지는 글

정보 수집과 관련한 글, 유행어 등 교과서가 처음 편찬될 때에는 관심을 끌 수 있었으나 개편되지 않음으로써 시의성이 떨어져 구태의연하게 느껴지는 글이 많다.

Ⅳ. 이런 국어 교과서를 바라며

1. 주체의 측면

교과서를 만드는 데 있어 교사의 관점과 학생들의 정서가 담길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선정하는 일에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새 교과서의 청사진을 그리는 마당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국어 교육의 중심에는 국어 교육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도, 교과서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닌 바로 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이 놓여야 한다는 점이다.

2. 내용 선정의 측면

○ 본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과서이어야 한다. 더불어 항존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어 교육의 목표와 최근의 교육 이론이 잘 반영된 교과서이어야 한다.

○ 중학교 교과서 전체 또는 초등 학교 및 고등 학교 교과서와의 연계까지를 고려하여 전체 얼개를 확정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교과서의 상시 개편 체제가 필요하다. 개편은 단순히 오·탈자의 수준이 아니라, 지문의 교체나 단원 구성의 수정 등 좀더 넓은 범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의성이 문제가 되는 지문이나 학습 활동은 해마다 교체해야 학습의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국어 교과서의 필수 학습 양을 줄여야 한다. 제7차 교과서에서 읽을거리가 많은 것은 평소에 글을 읽지 않는 아이들에게 독서의 양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많아 알찬 학습이 되기에는 벅차다. 각종 평가와 관련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가볍게라도 다루어 주어야 하는 교사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가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실현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풍부한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읽기 자료, 활동 자료집 등을 분책하여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제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그 흥미와 수준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의 검토가 아니라, 실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반응을 관찰해 본 결과를 활용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학생들의 수준이란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이나 지식의 수준뿐 아니라, 지문의 난이도, 사고력의 수준, 학생의 경험의 수준 등 다각적인 면을 포괄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학생 작품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학생 작품은 동기 유발이나 시범 보이기의 자료로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학생들다운 생각과 정서를 포함하면서도 독특하고 완결성 있는 글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어 2-2 '창작의 즐거움'에는 학생 작품이 소단원 지문과 보충·심화 학습 자료로 실려 있는데, 심화 학습의 글은 미숙한 학생도 창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취지 말고는 별로 도움이 되는 점이 없다. 학생 작품 중에서도 감동적인 글, 독특한 글, 아름다운 글이 얼마든지 있다.

○ 지문의 내용은 그 가치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야 한다. 문학 단원의 경우, 문학성에 대해 공감이 가지 않는 작품이 그 목적성으로 인해 선정된 것이 있다. 예로, 국어 1-2 '숨 쉬는 영정'은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의식해 선정한 글인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감동을 주기보다는 억지로 공감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 자연스럽게 매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좀더 정교하게 구안되어야 한다. '매체 읽기', '매체로 읽기'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학생들의 읽기 현실을 생각할 때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와 관련된 학습은 꼭 필요하다. 생활 국어 1-1의 '정보 수집 연습'과 같은 단원은 수시로 정보를 검색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요즘의 학생들에게는 시의성이 좀 떨어지지만 제7차 교과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볼 수 있는 단원이어서 신선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했다.

3. 내용 구성의 측면

○ '국어'와 '생활 국어'로 분책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기, 듣기, 쓰기는 마땅히 읽기 학습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읽기를 중심으로 하고 말하기, 듣기, 쓰기 학습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단원 설정 및 학습 활동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제7차 교과서의 생각넓히기와 같은 부분을 좀더 확장시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 학습을 아우르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단, 국어 지식의 경우는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 별도의 체제를 고안하여 삽입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의 일상 생활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하다. 계절성이나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시의성을 고려한 글을 다루게 된다면 좀더 생동감 있는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기 초의 기대와 각오, 학년 말의 반성, 계절성이 반영된 글의 배치나 학생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학년 말의 부드럽고 재미있는 지문 배치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교사가 재구성하여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동료 교사와의 협조, 입시 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교과서 자체가 이를 고려한다면 교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 학습자가 능력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학습자 혼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의 절차나 방법을 쉽게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구조 및 전개 방식을 제시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제시되는 학습 장치들은 자연스러운 읽기를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양이어야 할 것이다.

○ 평가 기능의 강화를 위해 '자기 점검'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더불어, 동료 평가 및 체크리스트와 같은 평가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다음 학습의 기초로 삼거나 환류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 국어 지식 부분의 개념이나 원리를 탐구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정교하고 단계적인 제시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 하겠다.

4. 기타의 측면

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국어 교과서도 검인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의 가치관과 품성의 내면화, 고등 정신 기능의 신장, 도구 교과로서의 역할 등 국어 교육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미 검인정화가 이루어진 다른 과목 교과서의 선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 이루어져야 한다.

Ⅴ. 나오며

잘 만든 교과서를 바탕으로 신나는 수업, 유익한 수업을 하는 것은 모든 교사의 꿈이다. 많은 감탄과 또 그만큼의 우려와 함께 태어난 제7차 교과서는 이제 국어 교과서의 정체성, 교과서 제작의 주체와 같은 총론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외적·내적 체제와 같은 각론의 관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고맙고 배우는 사람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교과서를 기대해 본다. 연

참고 문헌

- 손영애. 『국어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최현섭 외 6인 공저.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0.
-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 여는 국어 교육」, 2003년 봄호.
- 노명완 외 5인. 연구 보고서 04-01,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 제1~5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은 손영애의 『국어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박이정)에서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국어 학습 도서 활용 수업의 실제

■ 글 / **박영우**(광주 서석고등학교 교사)

Ⅰ.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체제의 획일화, 교육 내용의 획일화, 교육 방법의 획일화, 평가 방법의 획일화 등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사고가 획일화되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성, 개성, 다양성을 기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도입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 재량 활동의 신설과 질 관리 중심의 체제 확립 등 획기적인 제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습자들의 능력과 수준, 적성과 진로,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보충·심화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 세계, 필요와 요구, 개인차, 지역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 및 전통을 고려하여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자료이지만 보다 다양하고 훌륭한 자료들을 폭넓게 개발해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경험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보충·심화 학습을 위한 자료로 여러 가지 유형의 국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문학 작품을 폭넓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개인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독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를 제시해 줄 독서를 하기보다는 성적 향상을 위한 문제집 풀이에 열중하고 있다. 어쩌다가 시간이 나도 책보다는 컴퓨터를 가까이하며, 컴퓨터와 더불어 울고 웃는다. 교사들 역시 진도에 쫓기고, 수많은 격무에 시달려 학생들의 독서 지도를 하기에는 여력이 없다. 학생, 교사 모두에게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마침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전국의 학교에 바람직한 학교 도서관과 독서 교육을 실현하고자 교

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사업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를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으로, 즉 수업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 대단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단원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는 학습 도서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두 권의 참고 도서를 안내해 주고 읽도록 하였다.

소단원 수업이 끝나면 한 권의 도서는 보충 학습 개념으로, 한 권의 도서는 심화 학습 개념의 자료로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서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대입 심층 면접·구술 고사 준비도 되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Ⅱ. 학습 도서 활용의 실제

고등 학교 국어(상·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대단원은 학습 내용과 목표를 제시한 '단원의 길잡이'와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준비 학습',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단원 학습',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원의 마무리', 수준별로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심화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상권 대단원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소단원 (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학습 후에 소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 도서 활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단원의 학습 목표에 맞는 학습 도서 선정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의 필자는 우리말을 소중히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찌르레기, 황소개구리, 블루길 등의 동물을 예로 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소한 단어나 어휘, 세계화와 같은 새로운 개념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휘나 배경 지식을 습득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읽기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말의 소중함과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읽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읽기 과정에서 얻은 이러한 깨달음을 내면화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우리말을 가꿀 수 있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공용화에 대하여 논의한 학습 도서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복거일)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는 토론 수업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습 도서로 선정하였다.

2. 학습 도서 정보

추천 도서명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도서 정보	복거일 / 삼성경제연구소 / 2003년 / 138쪽 / 5,000원
도서 내용	이 책은 지난 몇 해 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영어 문제'를 '경제 논리'로 분석하고, 그 현실적인 대책으로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복거일은 1998년 그의 저서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영어 공용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관공서의 공문서 등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하게 하자."는 그의 주장은 당시 엄청난 파장과 논란을 일으켰고, 그 후 '영어 공용론'에 관한 찬반 논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되어 왔다. 또다시 그가 좀더 강고한 논리로 무장하고 영어 공용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총 22장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내용	5장. 영어의 앞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6장. 민족어들의 쇠멸 14장. 영어 공용의 득실 17장. 영어에 대한 태도의 변화 19장. 영어 공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 20장. 효율적인 영어 교육

3. 학습 도서 지도 방안

단원을 학습하기에 앞서 혹 학습 도서 준비 소홀로 못 읽어 오는 학생들을 생각하여 꼭 읽어야 될 부분을 인쇄물로 만들어 미리 읽기 자료로 나누어 주었으며, 읽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해 주었다. 또, 독서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 더 읽으면 좋을 책도 소개해 주었다.

☞ 이런 점을 생각하며 읽어요.

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어느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② 제주도를 영어 공용어화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읽어 보자.
③ 영어 공용어화론의 찬반 논거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자.
④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책 제목으로 행시를 만들어 보자.

▶더 읽으면 좋은 책

- 시정곤 외. 『한국어가 사라진다면』. 한겨레신문사, 2003.
- 한학성.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 책세상, 2000.

4. 학습 도서 활용 교수·학습 지도안

단 원	(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교과서	14~18쪽	지도 교사	박 영 우
학습 도서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차 시	3/8	일 시	2005. 3 . .
본시 주제	필자의 관점과 나의 관점 비교해 보기	학습 단계	**심화 학습**	대 상	2 – 8
학습 목표	1. 적절한 배경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면서 읽을 수 있다. 2.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준비 활동	동기 유발	◉ **학습 동기 유발** ○ 외국어 투성이인 시내 광고판 2분 정도 보여 주기 ○ 제주도를 영어 공용어화하면 어떻게 될까?	3분	외국어 투성이인 광고판을 보여 주면서 영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학습 문제 확인	학습 목표 제시하기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전략 활용 ○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 학습	2분	
전개 활동	전체 활동	◉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의 글을 읽고 해결하기** ○ 인용글 1 : 5. 영어 앞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 인용글을 빔 프로젝트로 보여 주기 －영어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기(찬반 토론) ○ 인용글 2 : 6. 민족어들의 쇠멸 • 짧은 인용글을 읽고 한국어의 장래 생각해 보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발표하기 ○ 인용글 3 : 14. 영어 공용의 득실(찬반 토론) • 인용글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생각해 보기 －영어 공용을 시행하여 얻는 이점 －영어 공용을 시행하여 얻는 폐해 ○ 인용글 4 : 17. 영어에 대한 태도의 변화 •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발표하기 ◉ **나의 의견 주장하기** ○ 영어 공용어화에 대한 나의 의견 주장하기 •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작성하기	6분 5분 16분 5분 8분	빔 프로젝트 학습지 ① 학습지 ②
정리 활동	학습 정리	◉ **학습 정리 및 차시 예고** ○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 ○ 제주도를 영어 공용어화했을 때 예상되는 점 과제 학습지에 기록해 오기 ○ 학습 도서 책 제목으로 행시 짓기 ○ 『그 여자네 집』(김용택) 읽어 오기	5분	수행 평가 과제 학습지 ①, ②

5. 학습 도서 활용 교수·학습 지도안 전개 활동 자료 및 학습지

◆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의 인용글 3(예)

14. 영어 공용의 득실

……반면에, 영어 공용은 우리 시민들이 영어권의 방대한 문화에 쉽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이득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양 문물을 섭취하려고 그렇게 애써 온 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서였다. 못살고 힘이 없으면, 계속 서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쳐 온 것이다.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제어인 영어를 제대로 못 쓰면, 남들에게 뒤져서 점점 큰 서러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영어를 배우려는 것이다. ……

(1) 학습지 ①

	책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	책 명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내 생각을 말해요	반, 이름	

◎ 영어 공용어의 득실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500자 내외로 써 봅시다.

영어 공용어의 이점			
영어 공용어의 폐해			

(2) 수행 평가 과제 학습지 ②

	책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	책 명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책의 주장이 현실이라면?	반, 이름	

◎ 제주도를 영어 공용어권으로 지정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써 봅시다.

제주 도민	
제주도 외의 한국인	
외국 관광객	

Ⅲ. 학습 도서 활용 수업의 기대 효과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 제작이 필수적이다. 교과서는 성전이 아니라 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전범이 되는 자료라는 관점에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과서 이외의 자료 사용도 가능하다는 열린 교과서관을 가지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차시 학습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뒷짐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 주면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원별 관련 학습 도서를 선정해 주고 읽도록 하였다. 국어과 학습 도서 활용 수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개인의 창의와 개별성을 계발, 존중하는 교수·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서의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그 정도에 따라 단원 관련 학습 도서를 제시하므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3)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 도서를 소개하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 성취 의욕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4) 독서를 통한 토의·토론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탐구력, 사고력, 창의력이 신장될 것이다. 연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 연구와 역사 교과서

■ 글 / **신주백**(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1

21세기 들어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 현안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요인과 직접 관계가 없다. 지금의 현안은 기억을 둘러싼 편차, 곧 역사 인식을 둘러싼 마찰이 삼국의 관계 진전을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보기 드문 국제 정세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세 나라 사이에 역사 인식의 차이는 교과서 문제와 영토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한·중 간의 교과서 문제는 2003년 중국의 동북 공정, 달리 말하면 고구려사 빼앗기 프로젝트로 표면화하였고, 한·일 간의 교과서 문제는 2001년과 2005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파동으로 표면화되었다.

그런데 한·중 간의 교과서 문제는 간도 영유권과 백두산 천지의 경계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제기되고 있다. 한·일 간의 교과서 문제 역시 2005년도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의 검정 합격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영토 문제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덧붙이자면, 러·일 간의 북방 4개 섬에 대한 일본으로의 반환 문제도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현실은 대단히 민감하고 복잡하다. 더구나 상대방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잘못 서술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실을 전달해야 할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이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한·중·일 세 나라 역사 교과서, 특히 필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부각시키겠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만을 지적하지 않겠다. 동시에 문제점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세 나라의 연구 동향도 함께 언급하겠다.

2

한·중·일 세 나라 모두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가르치는 데 지침으로 삼는 교재를 갖고 있다. 이를 한국에서는 교육과정, 일본에서는 학습 지도 요령, 중국에서는 역사 교학 대강과 역사 과정 표준이라고 한다.

먼저, 한국의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를 분석해 보자. 한국의 교육과정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자주적인 근대화가 중단되고 한국인이 탄압과 수탈을 당했지만, 민족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광복'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개발을 철저히 부정하고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 가혹한 수탈과 민족 말살을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침략사에 관한 잘못된 강조는 지배 정책의 시기별 변화를 학생들이 파악하는 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가령 교육과정은 일본이 본토 자본과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식민지 조선을 만들었다고 하는 한편에서,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고 미곡과 자원을 '수탈'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학을 모르는 초보적인 사람도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고, 국가 간에는 수출과 수입이란 교역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의 부(富)'를 유출시켰다는 점에서 수탈을 강조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 행위까지 모두 수탈이라고 획일화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개입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실 모두 1937년을 전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따른다면 한국의 역사 교육에서는 1910, 20년대 '수탈'과 1930, 40년대 '수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두 사실 모두 1945년 8월 이후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시야에 넣고 있지 않다. 단절만이 강조될 뿐 연속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침략(개발)과 저항(수탈)의 대립 구도는 잘못하면 한국사의 세계사적 연관성을 소홀히 다룰 우려도 있다. 실제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을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역사를 『국사』, 『세계사』 교과서 모두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중학교 『국사』에서는 1919년의 5·4 운동, 1931년의 '만주 사변'과 1937년의 '중일 전쟁'이란 용어만을 서술하고 있다. 또, 1937년 이후 강제 동원의 역사, 민족 말살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 두 줄로 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에서는 원폭과 소련의 참전이 일본의 항복에 미친 영향, 나아가 그것이 한반도 분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다.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 다룰 수 없는 처지이다.

현행 역사 교육은 한국사의 세계사적 연관성에 관해 소홀할 뿐만 아니라 잘못 다루는 경우도 있다. 가령 3·1 운동 이후 1920년대 동북아의 정세는 워싱턴 체제를 중심으로 이

일본의 근대사에서 인접 국가와 민족을 침략·지배한 역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는 교과서가 많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달하려는 부실한 노력이 누적된 결과 우경적인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기반으로 되었고, 국제적 비판을 오히려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해야 하지만, 우리의 교과서는 여전히 베르사이유 체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독립운동사에만 연구를 집중한 결과 일제 강점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사 내지는 외교사에 관한 연구가 풍부하지 못한 결과이다. 동시에 우리의 역사 인식이 유럽 중심의 세계사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없다.

우리의 반일 의식과 반일 감정이 학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고 구체성을 갖지 못한 가운데 선망과 멸시 사이에서 요동치며 감정에 치우치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또, 대만과 만주의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대만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연구 논문이 지극히 부족한 편이며 국민적 인식이 완전히 무지하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근대의 만주는 이민사와 독립 운동사에 관한 연구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저항 공간으로 교육과정에서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이미지, 감성적 역사상만이 우리 사이에 남아 있을 뿐이다.

3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은 근대 일본의 형성과 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설명할 때 아시아에서의 국제 환경과 연관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제1, 2차 세계 대전 시기에도 일본의 역사를 세계 정세 및 일본 국내의 움직임과 연관시켜 고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침략'이란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 관계'와 '대외 정책'이란 용어와 관점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중일 전쟁은 '중국과 전쟁의 발발과 그 장기화 및 국제 관계의 변화' 등을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과 일본의 관계를 서술할 때도 일본 '대외 정책의 추이와 전시 체제의 강화 등'을 연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다면 1931년 만주 사변, 1937년 중일 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은 중국과의 관계, 대외 정책의 추진이란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대부분의 일본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일본의 근대사에서 인접 국가와 민족을 침략·지배한 역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는 교과서가 많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전달하려는 부실한 노력이 누적된 결과 우경적인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기반으로 되었고, 국제적 비판을 오히려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역사 연구에서 침략과 지배 문제가 일본 근대사의 한 축으로 대접받고, 그리고 역사 교육에서 대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진실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에 관한 자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도 1982년도 역사 왜곡 파동 때였다.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인 자신들의 시야에서 식민지가 빠져 있었다는 반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1990년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과 일본군 '성 노예' 문제에 관한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는 일본 사회의 반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이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켰으며, 학교 교육에 침략과 지배 문제를 반영시키는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켰다.

일본 국내에서는 1965년부터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운동, 곧 이에나가 재판을 매개로 한 활동이 대외적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94년도 고등 학교 일본사 교과서와 1998년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모두 일본군 '성 노예'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하고 일본의 '전후 책임'을 적극 다루었다.

여기에 반발하여 일어난 움직임이 1997년 1월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다. 기존의 역사 왜곡 움직임이 일부 정치인과 문부과학성의 관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새역모'는 달랐다. 왜냐 하면,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기는 했지만 역사 분야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우익의 시민 운동 차원에서 '새역모'를 결성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심화되었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광범위한 정치 행위를 동반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 '새역모'는 역사 교과서의 발행과 역사 교육을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평화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위한 발판, 곧 정치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새역모'는 일본 우익의 전통적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새역모'는 청일 전쟁이 '마지막 조공국'인 조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청나라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그에 따라 일본이 '천진 조약'에 근거하여 군대를 파견한 결과 일어난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역모'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일본 군대가 출동했다는 점을 덮고 있다.

또, 1894년 5월 7일 전주 화약으로 정부군과 동학 농민군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 청의 군대가 주둔할 명분이 없었는데, 일본군은 이를 거부하고 계획적으로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경복궁을 점령하였지만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일본 우익은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계기로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새역모'는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이며('한반도 팔뚝론'), 승리한 전쟁은 아시아의 여러 민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 러시아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한국 병합'). 하지만 '새역모'와 일본의 우익은 개전(開戰)의 책임을 비역사적인 운명론에 떠넘기며 침략성을

주체적 경험의 축적, 내지는 조선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경험이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단절 왜곡되어 간 측면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고발적 사실' 지적은 많을지언정 아직까지 이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깊이는 박약한 편이다.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다툰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한 일본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지배하기 위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진정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

'새역모'는 조선을 지배하여 개발했다고 강조하며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다. 한국의 반발을 예상하고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을 개발했다는 '컬럼'을 같은 곳에서 특별히 언급하여 간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는지, 조선을 개발함으로 인해 일본 본토의 정치와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가령, 낮은 쌀 가격은 일본 노동 시장의 안정에 기여했는데 그것은 정치 안정과 더불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더구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자주적 경험 축적을 방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잘못도 있다. 주체적 경험의 축적, 내지는 조선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한국인만의 고유한 경험이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단절 왜곡되어 간 측면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고발적 사실' 지적은 많을지언정 아직까지 이에 관한 분석적 연구의 깊이는 박약한 편이다.

더구나 침략과 저항의 사이에는 식민지 사회의 또 다른 일상이 있었고, 그것은 봉건적인 요소와 더불어 근대적인 요소가 중층적으로 혼재된 자본주의적 일상이었다. 이를 주목하고 언급하는 것이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연구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고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4

중국의 역사 교학 대강과 역사 과정 표준은 '국정(國政)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민족 단결과 조국 통일을 수호'하는 것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개혁 개방하고 중화(中華)를 진흥시키려는 사명감'을 학생들이 갖도록 하는 데 역사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근대사의 경우, '중국 근대사(1840년~1949년. 인용자)는 중국이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된 굴욕의 역사이며 또한 중국 인민이 민족 독립과 사회 진보를 쟁취하기 위하여 반제 반봉건 투쟁을 견지하고 아울러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신민주의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역사이다.'라고 교양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 교학 대강과 역사 과정 표준은 침략과 그에 저항하여 승리한 역사로서 근대사를 서술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만주와 같은 점령 지역을 '점령구'라 표현하며 일본이 실시한 정책을 '야만적인 경제적 약탈'과 '노예 교육 실시'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고 있다.

또, 1937년의 남경 대학살처럼 일본군의 잔인한 행위를 특별히 강조하는 한편에서, 항일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주요 전투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는 특징도 있다. 그러면서도 역사 교학 대강과 역사 과정 표준은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한 역사'에서 중국 국민당의 항일 투쟁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념의 제한성, 분단의 역사 인식이 들어나는 대목이다. 또, 본토의 항일 투쟁과 달리 조·중 연합이란 특징을 갖고 있는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며 상급 학교 진학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대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한 항일 투쟁사만을 언급하며 주변이자 변방인 만주사를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과 저항이라는 구도 속에서 자기 나라의 근대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사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한 편이다. 반면에, 한국사에 관한 관심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대학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 동안 무관심하다가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대사 연구 동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정도이다.

또, 한국 근대사에 관한 연구는 조선족의 소수 민족사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정도다. 그 원인의 하나는 관심의 부재에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초등 과정에서처럼 중국의 인민 학교 6학년『사회』교과서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대륙의 지리, 역사에 관해 설명하는 '장'이 있다. 하지만 일본을 소개하고 이어 동남아를 소개하면서도 한국이 빠져 있다. 사실의 왜곡만이 편견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지도 편견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에 관한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받을 기회가 없는 중국인들에게서 객관적인 이해와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철학이 있는 교과서를 기다리며

■ 글 / **이호종**(덕문여자고등학교 교사)

"아버지, 동화책 좀 사 주이소."
"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아나?"
"……."
"학교에서 배우는 거,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알면, 그 때 보고 싶은 책 사 달라고 해라."
"아버지!"
"교과서에 있는 거도 다 모르면서 다른 책을 보겠다는 기 말이 되는 소리가?"

학교에 입학하고 글을 읽을 줄 알게 된 후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동화책을 마음껏 읽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초등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교과서를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 못했고, 거짓말을 할 배짱도 없었다. 교과서 너머의 세상을 알고 싶을 때마다 내 귓전에는 늘 아버지의 투박한 경상도 억양이 맴돌았다.

"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아나, 교과서에 있는 거 다 아나?"

기역, 니은도 모른 채 초등 학교—당시에는 '국민 학교'라고 불렀다.—에 입학하여 '국어' 책에서 내가 처음 배운 말은 '놀자'였다. "바둑아, 놀자.", "영희야, 놀자."였다. 선생님의 선창을 따라 우리는 '놀자'를 목청껏 외치고, 열심히 반복해서 썼다. 그 시절 보자기에 곱게 싼 책을 조심스럽게 펼치고, 한 자 한 자 배우고 익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다. 중학교와 고등 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렇게 교과서는 전범(典範)이었고, 바이블(Bible)이었다. 내 나이 8살 때, 또래의 일본 아이들이 '모이자'를 배웠고, 미국 아이들은 '일하자'를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때였다.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철학자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는 '인생은 백지 위에 그리는 그림'이라고 했다. 그 그림은 투명한 느낌의 수채화일 수도 있고, 담백한 느낌의 수묵화일 수도 있으며, 화려한 느낌의 유화일 수도 있다. 그림을 그리는 이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그것은 대작일 수도 있고 소품일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붓질하고 채

색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동화책을 변변하게 구하기 어렵던 시절, 박정희 씨는 딸과 아들을 위해 손수 그것을 만들어 보자고 마음먹었다. 문양이 예쁜 공책을 구해 거기에 글도 쓰고 그림도 정성스럽게 그려 넣었다. 사진도 붙였다. 자녀들에게 '육아 일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다섯 아이들은 어머니의 살뜰한 정성 덕분에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쉽게 한글을 깨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그림에 담아 표현할 수 있는 재주를 덤으로 길렀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에 누구 하나 모나거나 넘치지 않았으며, 한량없이 넓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게 되었다. 모름지기 교과서에는 이런 마음보가 배어 있어야 한다.

우주의 나이는 약 100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쯤 된다. 그런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약 5백만 년 전의 일이다. 지구의 나이를 12시간으로 환산하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11시 59분도 훨씬 지난 때인 셈이다.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인류의 역사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기원 후 2000년의 시간도 빛으로 환산하면 겨우 하루 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굳이 불가의 가르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의 한평생은 100년을 살아도 찰나(刹那)를 사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청소년기도 예외 없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그 귀한 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꿈이다. 그 꿈은 나를 태양 가까이 날 수 있는 신화 속 이카루스(Icarus)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한결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다. 또,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 한계인 죽음조차도 상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 꿈은 생명체의 노화조차도 더디게 하는 마력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 꿈꾸는 것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고, 꿈만큼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도 드물 것이다.

하인리히 슐리만(Heinrich Schliemann)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호메로스(Homeros)의 서사시 『일리아스(Ilias)』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트로이(Troy)'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소년은 아버지의 선물 속에서 신화를 역사로 믿으며 자랐다. 소년의 학교 생활은 가난 때문에 14살에 끝났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식품점 점원으로 일하며 온기 한 점 없는 다락방의 추위 속에서도 독학으로 아홉 나라의 말을 익혔다. 마침내 백만장자가 된 후,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로부터 3년여 만에 그는 3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고대 문명의 보고를, 트로이라는 노다지를 암흑 속에서 길어 올렸다. 7살 때의 꿈을 46살이 되어 이룬 것이다. 그를 비웃던 이들은 고대의 역사를 새로 써야 했다. 이처럼 교과서에는 아름다운 색깔로 나름대로의 인생을 채색하면서 살 수 있는 꿈이 담겨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갈파했듯이, 이 세상은 하나의 큰 무대이고, 우리는 그 무대 위의 배우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역할은 각기 다르다. 비중이 크든 작든 각자의 역할

이 이미 맡겨져 있다. 저 심연에서 잠자고 있는 위대한 힘을 느끼고 가슴 속에 미래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많아야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

16살 때, "정확한 우리 나라 지도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곤충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파브르는 일생을 곤충 연구에 바쳤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20살 때의 결심을 60여 년이 지난 82살이 되어서야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Faust)』로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퇴행성 신경 근육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이용해 블랙홀(black hole)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시공(時空)의 특성을 연구하여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가 되었다.

2살 때 앓은 성홍열(猩紅熱)로 평생을 귀머거리로, 소경으로, 벙어리로 살았던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살면서도 역경을 딛고 불꽃 같은 일생을 살았다.

이들의 삶처럼 인생의 목적은 세상을 편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게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탈무드(Talmud)』에도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만 살면서 스스로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좋은 인연으로 얻은 생명을 통해 아름다운 소명을 실천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되는 법이다. 하루하루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한평생이 자랑스러울 것이다. 마땅히 교과서에는 이런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주변의 잔디밭이나 위험한 장소에는 으레 '출입 금지' 또는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푯말이 서 있다. 그 고압적인 서슬에 가슴이 다 서늘해진다. 마음에 먹구름이라도 낀 날이면 잔디밭을 휘저으며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반감이 생기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푯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만 담겨 있고, 그것을 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말만 귀양 보내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말이란 본래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기에 일방 통행식으로 말해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천안에 가면 아담한 절 '광덕사(廣德寺)'가 있다. 그 절의 범종각(梵鐘閣) 계단 밑에는 여느 절처럼 바깥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한 팻말이 놓여져 있는데, 보통의 절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와는 자못 다른 격조가 느껴진다. 팻말에는 '그대 발길 돌리는 곳'이라 적혀 있다. 이쯤 되면 아무도 그 계단을 모른 척 오를 수 없다. 무심코 범종각 계단으로 발걸음을 향하던 사람의 마음을 일순 흔드는, 그 담백하고도 은근한 금족령이 돌아서는 발걸음조차 오히려 가볍게 한다. 교과서에는 이런 격조와 수준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똥바가지를 든 어른들이 그 바가지에 맑은 물을 담으며 아이들에게 권하면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실까? 하물며 똥바가지에 똥물을 담으면 쳐다보기라도 할까? 이러나 저러나 똥

물인 것을 누가 거들떠보겠는가? 모름지기 어른이 보여 주는 길은 아이들의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 마땅히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반드시 함부로 걷지를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행적)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니〔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 서산대사(西山大師)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한시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찍이 이 시를 인생의 좌표로,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행운이요 축복이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만 할 뿐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렇기에 교과서는 세상을 담은 그릇으로 손색이 없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은 학습자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이끄는 데는 철학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내용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꿈을 실현할 방안이 담겨 있어야 한다.

6세기경 주흥사(周興嗣)가 양무제(梁武帝)의 명을 받아 지은 『천자문(千字文)』은 "하늘과 땅은 검고 누르며 우주는 넓고 크다.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과 별은 벌여 있다. 추위가 오면 더위는 가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며 겨울에는 감추어 둔다.〔天地玄黃 宇宙洪荒 日月盈昃 星辰列張 寒來署往 秋收冬藏〕"로 시작하고 있다. 하늘의 이치와 땅의 섭리를 일깨우고 난 뒤에야 '사람〔人〕'을 가르치고 있다. 자연을 먼저 알고 사는 삶과 인간을 먼저 아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낱글자를 단순하게 모아 조합하는 차원을 넘어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율문(律文)을 만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서당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천자문』을 교과서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책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만은 온전히 가르쳐야 한다. 세상이 바뀌면, 세상이 변해 가는 모습이 예견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법이다. 교육과정이 새로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때를 맞추어 함께 바뀌는 것도 다 이런 연유 때문이다. 그런데 개성·자율성·다양성·대중성 따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현대의 도그마(dogma)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떤 불확실성으로 채울지 모르는 일이므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만큼 보고, 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꿈꾸고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인간적인 사람보다 자연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는 것을. 칸트(Immanuel Kant)의 웅변처럼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작용'이다. 교과서에 담긴 오묘한 철학으로 하여 그것을 펼치고 닫을 때마다 '교육다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마치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를 사지 않았더라도 향수 냄새가 몸에 배듯이…….

연 재

외국의 교과서 제도(25회)

베트남의 교육 현황과 교과서 제도

■ 글 / **이견호**(베트남 호치민시 한국학교 교장)

Ⅰ. 베트남 교육의 개관

베트남의 아침은 오토바이로 시작된다. 흰 아오자이를 입고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모습 속에서 베트남 교육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 등·하교 시간에 바쁜 중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교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는 모습 속에 앞으로 20년 후의 베트남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제일 큰 도시인 호치민에서조차도 2부제 수업이 일반화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열악함 속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와 INTEL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교사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 ICT를 활용한 정보화를 통한 수업 방법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방법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베트남의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교육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와 같은 외국어에 투자하는 교육비가 매우 높다. 실제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한 관심이 물론 사회 문제화될 수도 있겠으나, 긍정적으로 학력 향상 등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수의 국제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효과도 있다.

베트남의 학급당 인원 수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40~50명 정도로 많은 편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 크고 또한 교사의 말에 순종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학급당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매우 좋은 편이다. 모든 학생이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면 기립하여 인사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예전에 현지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익숙지 않은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였으나 진지하고 순수한 학생들의 모습에 이내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주관하는 정부로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 과정은 국가에서 책

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범 대학 및 교육 대학은 많이 있다. 이 곳을 통해 교사가 양성되며, 교사의 처우 및 급여는 열악한 실정이다. 평균 100달러 남짓하다. 이와 같이 열악한 처우에서 교사가 방과 후 과외 및 개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다. 이러한 관습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베트남은 유치원이 잘 발달되어 있다. 3개월 이후부터 3세까지 탁아소가 있으며, 3세 반부터 6세까지 유치원이 있다. 주로 직장 생활하는 부모들을 위해 종일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초등 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 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다만, 부모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좋아 보이고 주로 학교 시설 또는 주변의 체육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학생은 일반 고등 학교로 진학하며, 직업 학교가 있어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일반 인문계 고등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직업 학교에 진학하여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업 학교는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그 교육과정은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베트남의 교육 행정은 중앙 집권적으로 국가는 주 정부를 통해 초·중등 학교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훈련부(이하 교육부)는 교육법에 유치원, 초·중등 학교, 대학 및 대학원까지의 각 과정에서의 목표와 해야 할 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관리는 초·중등 과정까지는 주 정부에서 관할하고 고등 교육은 교육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우리와 유사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 구분	연수 및 현황
유치원(Mau Giao)	• 3세~6세, 3년(종일반 많음.)
초등 학교(Truong tieu hoc)	• 6세~11세, 5년(1~5학년)
중학교 (Truong trung hoc co so)	• 11세~15세, 4년(6~9학년) • 상급 학교 진학 경쟁이 치열하며,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은 국영 기술 학교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진출
고등 학교 (Truong trung hoc pho thong)	• 15세~18세, 3년(10~12학년)
기술 학교 (Truong hoc ky thuat)	• 중학교를 졸업하고 3~4년 과정의 기술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하며, 고등 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 1~2년 정도의 직업 과정을 수행한다. 이들은 졸업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
대학 교육(Truong Dai hoc)	• 준학사(전문 대학) 과정(3~3년 반) / 학사 과정(4년), 약대(5년), 의대, 치대(6~7년) / 석사 과정(2년) / 박사 과정(2~4년). 1993년 말부터 우수 대학 육성책으로 하노이 국립 대학교, 호치민 국립 대학교, 타이 응웬(Thai Nguyen) 대학교, 후에(Hue) 대학교 및 다낭(Da Nang) 대학교 등 5개의 종합 대학교가 세워졌음.

Ⅱ. 베트남 교육의 특징

1. 베트남의 교육과정

베트남의 교육과정은 교육법 24, 30, 3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 목표, 시행 규칙, 교육 내용, 방법, 활동, 기준, 평가 방법, 교과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각 주 및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법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 전문 교육 개발팀에 의해 연구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것을 교육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준수하며 세부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운영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은 각 학교급별 교육 목표, 최소 수행 영역,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과목, 이론과 실기 비율 등을 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직업 기술 학교의 단기 과정 및 장기 과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교육과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업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노동부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나라와 다른 부분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중앙 정부의 각 부서별 협력 관계가 긴밀하다. 교육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것이 많다. 즉, 간호사 및 의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예능 교과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문화부가 서로 협력하고, 체육과 관련된 내용은 체육부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서와 협력한다.

또, 전문 대학 및 대학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의 통제하에 대학 교육이 실시된다.

2. 베트남의 학기 운영

신학기는 매년 9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5월 말까지 공부하고 여름 방학을 시작한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3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다. 반면에 겨울 방학은 없다. 다만, 중국의 영향으로 음력 설 기간에는 약 2주 정도 긴 휴가 기간이 있다. 학년에 대한 진급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진급할 수 있고 유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졸업 시험은 매우 어려우며, 대학에서 학점을 모두 이수해도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은 졸업 시험을 대비하여 밤을 새워 공부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 군에 입대하게 되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병역이 면제가 된다. 대학생이 되면 병역이 면제되는 대신 약 2달 정도의 군사 훈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 훈련은 남녀 차이가 없다. 모든 대학생들은 2학년 때와 4학년 때 각각 한 달 정도씩 두 달 가량의 군사 훈련을 받게 된다.

3. 성인 교육

베트남에서 성인 교육은 매우 활발하다.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개방

대학 등을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 대학에 설치된 어학원 및 성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학원 등도 매우 많은 편이다. 특히, 성인의 직업과 연계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만 주관하지 않고 노동부와 연계하여 관할하고 있다. 즉, 교육의 내용 및 자격증 부여 조건 등은 모두 노동부에서 규정할 권한이 있으며, 교육 방법 및 교육 기관 운영에만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가 많으며, 퇴근 후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베트남 교육법에서도 성인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인 교육의 활성화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Ⅲ. 교과서 발행 제도

모든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는 교육부 산하 교과서 검정(심사) 위원회에서 저자나 집필 그룹이 제출한 교과서 초본 심사를 하여 통과가 되면 교육부 출판부에서 발간을 하게 되며, 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지게 된다.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유치원부터 고등 학교까지 교과서는 반드시 교육부 주관하에 교육 출판사가 출판을 한다. 물론, 교육출판사 내에 여러 자회사 출판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 규모가 커지므로 하나의 출판사에서는 감당을 못하게 되고, 또 정부가 통제는 해야 하므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개편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전 교과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초등 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의 개편은 2003년에 완료하였으며, 고등 학교는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부 수정이 안 된 교과서는 2006년까지 전 교과서의 내용을 개편하는 작업을 한다. 또, 교육 내용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과서 발행에 핵심이 되는 베트남 교육출판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 교육출판사 소개

(1) 교육출판사의 주소와 소재지

본사 주소 : 81 Tran Hung Dao – Ha Noi
전화 번호 : 84 – 4 – 942 – 2011
Fax : 84 – 4 – 942 – 2010

교육출판사는 1957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2003년 7월 28일 결정문 3961 / QD-BGD&DT - TCCB에 따라 교육출판사가 모회사(본사), 자회사의 형태로 재조직되었다. 베트남 이름은 NHÀ XUAT BAN GIAO DUC, 영문명은 EDUCATION PUBLISHING HOUSE이며, 4개의 모회사인 교육출판사가 하노이에 2개, 호치민에 1개, 다낭에 1개사가 있다.

(2) 교육출판사의 직무와 기능

베트남 전국 교육 체계에 속한 각급 학교와 모든 전공 분야의 학습과 강의를 돕기 위해서 편찬, 편집, 출판, 인쇄, 각종 교과서, 참고서, 잡지, 회보, 교과용 지도서, 테이프, CD-ROM, 전자책 등을 총 발행, 제작하는 단체로서, 도서관, 학교, 발행 업무 지도 및 관리, 교육 분야 출판을 관리하는 교육부를 돕는다.

240명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교수직 1명, 부교수 5명, 35명의 박사, 42명의 석사급 직원이 3개 지방에 있는 교육출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출판사에는 베트남 전국 내 각급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거나 가르쳤던 경험이 풍부하고 권위 있는 학자, 전문가, 교육자로 구성된 집필진이 있다. 또, 교육 출판사에는 출판사 최고 경영자를 자문하는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출판 발행 위원회, 과학 기술 위원회에 소속된 학자, 연구자들은 교과서의 제목 기획, 출판에 필요한 과학 기술의 적용에 대해 자문을 하고 교과서의 질을 평가한다.

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주된 출판물은 유치원용 책, 각급 학교의 학습자와 교사를 위한 교과서, 교사용 지침서, 연습 문제집, 대학생을 위한 교재 및 참고 자료, 전문대, 공업 기술 학교 교재, 소수 민족 학생을 위한 교재, 전문 잡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 교육출판사는 러시아, 라오스, 태국, 상가포르,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 연합과 교과서와 교재 출판 협력과 교류를 체결하였다. UNICEF, UNESCO, FAO, 세계 은행이 교육 출판사의 출판 업무와 각종 인쇄 장비 설비 투자를 도왔고 현재도 돕고 있다.

Ⅳ. 베트남 교육의 장기 비전 및 전략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도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많다. 열악한 현실과 단순한 교수 방법에 의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1~201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교육 개혁의 목표를 보면, 2010년까지 국제 수준의 교육의 질을 달성하는 것, 특히 과학 분야에 대한 인력 자원 개발을 중시하며, 교과 내용, 교수 방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유치원 교육을 통해 2010년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은 일반 교육과 함께 고등 학교에서는 산업 기술 습득 및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대한 해결책에서 교육 목표,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개혁에 대한 것은 교과 내용에 이론과 실기를 조화롭게 배분하며, 체육과 예절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교과서의 내용을 시대 흐름에 맞게 전면적으로 2007년까지 개편한다. 둘째로 교사의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업 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단순한 강의식보다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신장을 유도하고 학생 활동을 조장하며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특히 예체능 교사에 대한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또, 많은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사립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교육에 대한 기부 문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국제 교육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하며, 특히 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세미나 등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베트남 교육법에서 특이한 것은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교육법에 제시한 것을 보면, 교육이란 정부나 교사, 그리고 학생만이 아닌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의무화했다는 것에서 교육의 사회화라는 면을 느낄 수 있다. 베트남은 아직 많은 열악한 교육 환경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많은 평생 교육 기관 및 지속적인 성인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 현상 속에서 20년 후에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국가를 이끌어 가는 그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다. 연

제 6 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어떻게 했나?

■ 글/최병모(한국교원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제 6 차 교육과정은 사회 각계에서 일고 있는 교육 내용 개선의 요구에 맞추어서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염두에 둔 대폭 개정의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제 5 차가 제 4 차 교육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 보완하는 것이었고, 제 7 차가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을 받아 개정된 교육과정이었다면, 제 6 차 교육과정은 개혁 차원에서 교육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이었다.

제 6 차 교육과정은 당시의 편수관리관이던 함수곤 국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교육과정 편제의 틀을 흔드는 대폭적인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재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는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출발했다. 물론, 그것은 전체적인 교육 개혁의 분위기, 비교적 잘 짜여진 편수관리관실의 조직과 43명의 편수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Ⅱ. 총론의 개정 과정

제 6 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로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었다. 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필수 교과는 줄여서 통합하고 선택 과목은 전문화, 다양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가장 이슈화된 것은 고등 학교 전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필수 과목의 설치라고 볼 수 있으며, 구성 체제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교과별로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5 단계로 구성하여 교과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고 또, 내용에서도 처음으로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 제 6 차 교육과정은 개정 과정에서 많은 언론에서의 논의를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교육 및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제 6 차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 전체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교육과

정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처음으로 총론이 끝나고 각론을 개정하였던 것과 달리, 총론 확정 이전에 위탁하여 귀납형과 연역형을 혼합한 절충형을 취하였다.

총론 연구에는 연구진 39 명과 521 명의 협의·자문진으로 구성되고, 교과별 각론은 550 명의 연구자와 23 개 분과 2,930 명이 참가하였다. 세미나, 공청회와 학교 현장 및 관련 교육 기관에의 의견 수렴과 검토, 159 개의 교육부 심의회에 2,512 명이 참여, 2～3 차례의 심의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편수관들을 포함 769 명이 참여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하였으며, 135 명의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관계자의 종합 검토회를 거쳤고, 개정 과정에서 18 개 교육과정 개정 협력 및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였다.

Ⅲ. 사회과 교육과정의 편제와 위원회 구성

총론에서의 필수 교과의 축소에 따라 국사 교과가 사회과로 편입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도 독립적으로 배분하고 교과서도 독립적으로 발행하는 형식적인 통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고등 학교에서의 공통 사회 과목의 탄생인데, 이 또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편제상으로는 공통 사회 과목이 설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반 사회와 한국 지리로 나누어서 교과서도 별도로 개발되는 이상한 형태의 공통 사회 과목이 만들어졌다. 이는 중학교에서의 통합을 보다 발전시켜 고등 학교 1 학년까지 연결시키는 정신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과는 전통적으로 국사 과목의 위치 설정의 문제로 공통 사회 과목의 구성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공통 과학과 같은 차원에서 공통 사회 과목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개발 기관은 한국교원대학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특수 목적 대학으로서 교과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이라는 이유 등이 작용하였다. 교육부의 사회과 담당자는 초등은 김용만 연구관이 맡았으며, 중등은 영역별로 나누어 지리 영역은 채희두 연구사, 역사 및 국사 영역은 윤종영 연구관, 그리고 일반 사회 영역은 필자가 맡았다.

연구 개발 기관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에 한국교원대학교 제 6 차 교육과정(사회과)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9 개 과목별로 연구 책임자와 공동 연구자 2～5 명과 6～18 명의 협의진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기관의 연구 총괄 책임자는 한국교원대학교의 권오정 교수가 맡았고, 학교급별 공동 연구자로 초등은 한명희 교수(인천교육대학교), 서재천 교수(공주교육대학교), 원경렬 교수(춘천교육대학교), 최용규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맡았다. 중등은 지리 영역의 김일기 교수와 역사 영역의 최용규 교수, 그리고 일반 사회 영역에는 김태헌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고등 학교도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Ⅳ. 학교급별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

사회과에서 논의된 중요한 주제는 국민 학교 저학년의 바른 생활 교과를 좀더 광역화시켜서 편성하는 문제, 중학교 사회과의 완전 통합화 문제, 고등 학교에서의 공통 사회 과목의 설치 문제 등으로서, 각계의 첨예한 이해 관계 때문에 그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많이 겪었다.

특히, 중·고등 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구조와 논리를 갖는 영역 또는 학문들이 같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조화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따라서, 내용 선정, 조직의 문제와 영역 간의 단원 수의 안배 문제로 많은 기간을 보내고 실제로 교육과정 내용 진술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여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초등 사회와 중학교 사회, 그리고 고등 학교는 필수 과목인 공통 사회를 중심으로 내용 구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 학교 사회

초등 사회는 중등과 달리 영역 간의 갈등이 적고 김용만 편수관의 주도로 내실을 기하는 기회가 되었다. 초등 학교에서는 제 5 차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첫째,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사회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과 교육이 되게 한다.

셋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힘쓴다.

넷째, 현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고 능력의 배양을 강조한다.

다섯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대 의식에 관한 요소를 충실히 반영한다.

여섯째, 교육과정 내용의 통합을 적극 시도한다.

일곱째, 국민 학교 사회과의 특징을 명료하게 하고, 중·고등 학교와의 연계를 체계화한다.

여덟째,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민족의 슬기와 창조의 정신을 기르는 데 계속 힘쓴다.

등이다. 또한 국민 학교 슬기로운 생활과 사회과와의 연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 먼저 사회과와 연계한 1, 2 학년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는 광역 통합 과목으로, 1 학년은 학교, 가정, 이웃 생활, 2 학년은 고장 생활, 고장의 자연, 고장 사람들의 협력으로 구성하였다. 사회 교과에서 3 학년은 우리 고장의 생활 환경, 4 학년은 지역 사회에서의 공동 생활, 5 학년은 우리 나라의 생활과 문화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등으로 각 학년의 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제 5 차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내용량의 과다, 높은 수준, 주지 중심의 내용 체계, 실생활과 유리된 내용 구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제 5 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난이도와 분량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정치 원리, 거시 경제, 세계지리, 국사 등의 내용 일부를 중학교로 이동시켜 내용량을 축소시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2. 중학교 사회

제 6 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중학교 사회과의 통합 및 내용 정선의 문제였다. 역사, 지리, 일반 사회 3 영역 간에 '영토 분쟁'과 국사 과목의 독립 개발 문제로 전체적인 조직 원칙을 세우기도 곤란했고, 통합을 위한 내용 구성에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교육의 논리'에 따라 교육과정의 대원칙까지도 수호할 수 없는 한국 사회과 교육의 현실의 아픔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사회과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현재 3 단계인 국·중·고등의 6·3·3 제의 내용 체계 중심에서 중학교 의무 교육의 대비와 내용 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국·중을 묶어서 9·3 제로 내용 체계를 재정비한다.

둘째, 국민 학교 사회과 및 고등 학교 사회과의 연계에 유의하면서, 특히 내용 요소를 정서, 축소시키고, 내용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셋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완화시키고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 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유의한다.

넷째,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발전시켜 주제적 접근을 통한 완전 통합으로 발전시킨다 등이다.

중학교의 내용 구성과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자문 교수로 있던 정세구 교수 중심의 한국 사회과 연구회 특별 연구 팀에서 중학교 통합형 사회과의 체계화 연구에서 제시한 안 등을 바탕으로 2 개의 안을 가지고 집중 논의를 하였다. 먼저, 1 안에서 1 학년은 사회과의 도입 → 향토 및 국토(종합) → 역사와 사회, 2 학년은 세계 지리 → 세계사 → 사회 현상, 3 학년은 현대 사회의 구조와 문제 → 사회 생활의 문제 파악으로 구성하였다. 2 안에서 1 학년은 사회 생활의 기초, 2 학년은 사회의 시·공간적 배경, 3 학년은 현대 사회의 문제와 인류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결국, 제 6 차 중학교 사회과의 내용 구성은 위의 안을 종합하고 연구 책임자인 권오정 교수의 주도로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틀인 파이(π) 형태를 취했다. 이는 지리 영역과 역사 영역을 통합하고 일반 사회 관련 내용을 그 위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서, 지리와 역사 관련 내용을 지역을 기준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는 좋으나 시·공간의 통합이 단원 순서의 벽을 허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3. 고등 학교 공통 사회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던 것 중의 하나는 고등 학교 사회과 편제를 정하는 것이었다. 편제 확정은 총론 연구진에서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였지만, 사회과에서 공통 사회 하나만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으로 한다는 맨 처음의 안은 무산되었다. 또, 공통 사회의 내용 구성을 하는 데는 강우철 교수의 고등 학교 공통 사회 내용 구성안인 '사회 과학의 개념과 탐구 방법, 인간과 사회 집단,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물품의 생산과 소비, 정부, 문화 전통, 현대 세계와 미래, 한국의 제 문제' 등으로 구성된 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은 제 5 차 교육과정의 편제인 정치·경제와 한국 지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공통 사회도 반(4 단위)씩 나누어 '일반 사회'와 '한국 지리'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공통 사회(일반 사회 4 단위, 한국 지리 4 단위), 국사(6 단위)를 필수로 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각각 4 단위)와 세계사, 세계 지리(각 6 단위)로 편제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학습량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10 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발전하면서 중등에 공통 사회 전공이 별도로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내용 구성에서 어려웠던 것은 공통 사회 과목의 한 영역인 일반 사회라는 새로운 영역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제였다. 마땅한 모델도 없고 연구의 축적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공통 사회 과목 원래의 정신을 살리고자 일반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일부 역사와 지리까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내용 중심이 아닌 탐구와 의사 결정 능력의 신장이라는 방법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모든 단원을 사회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 → 의사 결정 방법 모색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의사 결정의 평가 → 의사 결정의 다양한 실제로 구성하고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내용 중심의 사회과에서 방법 중심의 사회과로의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의 비판과 환영을 함께 받으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Ⅴ. 나가며

제 6 차 교육과정은 20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제 4 차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제 6 차는 교육과정 개정사에 남을 정도로 교육부 중심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제 7 차 교육과정이 개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 6 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보다 발전시킨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의 편수 담당자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교육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의 개정이었지만 교육부 편수관리관이었던 함수곤 국장(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을 중심으로 43 명의 편수관들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 사회과를 맡았던 편수관들도 편수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또, 연구 개발 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에서도 처음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맡아 연구 책임자인 권오정 교수를 위시해서 전 사회과 관련 교수들이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과 질 관리를 위해서 교육부 차원의 전문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에는 편수관리관실에 43 명의 편수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에서 과로 격하되었음은 물론 교육과정정책과장을 포함 21 명으로 반 이상이 줄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와 같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은 물론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도 편수 인력의 확충과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후속 지원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교육과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통 사회, 일반 사회, 역사, 지리의 4유형으로 분리하여 양성하고 있는 양성 제도를 사범 대학에서는 공통 사회 전공으로 통일하고 분과의 일반 사회, 역사, 지리 담당 교사의 양성은 대학원 과정이나 순수 학문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직 과목을 이수시켜 양성하도록 하는 변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 연

〈1989년~1998년 사회과 편수관〉

알리니다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58-861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쑥돌을 왜 화강암으로 쓰나?

■ 글/ 이규석(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원장)

Ⅰ. 용어를 바꿔 쓰다

1970년대 고등 학교 교사로서 잘 적응해 가며 참고서와 문제집을 출판하곤 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 때문에 그 곳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특히 1983년 겨울은 제 4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으로 아주 바쁜 때였다. 국정인 중학교 과학 1 학년 교과서와 지도서가 1984년 3월에 첫 적용되므로, 이의 마지막 손질로 교육부 편수관들은 바빴다. 이러한 교과용 도서 개발에 관련된 일로 바쁘게 지내던 중 1984년 3월에 교육부 장학편수실 자연과학 편수관실로 아예 발령이 나게 되었다.

자연과학편수관실 과학담당편수관 세 사람은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이었는데, 그 곳에서 일하게 되어 전문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처지였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다는 데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다. 그 세 분이란 물리과의 문찬호 편수관, 화학과의 김동식 편수관, 생물과의 정완호 편수관이었다. 모두 인격과 실력을 갖춘, 과학 분야에서 알아주는 분들이었는데,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보니 편수뿐만 아니라, 장학 파트 등에서도 이 세 분들은 인정받고 있음을 알았다.

이미 제 4 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에 고시되었고, 이 때는 주로 교과용 도서 편찬에 임하던 때였다. 초등학교 자연과 중학교 과학은 국정 도서로 개발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고등 학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검정 도서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연과 과학 교과용 도서 개발 단계마다 심의회가 있었고, 심의회 다음에는 독회해 가면서 집중 작업을 하였다. 교육부에 들어오기 전에도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을 했었지만, 막상 교육부 입장에 임하고 보니 입이 있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을 못하였다. 그런데 세 분 편수관님은 현재의 내용은 물론 과거의 내용까지 모두 외우고 있을 만큼 알고 있었고, 마치 다음에 나올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듯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육과정은 법령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문장이 정말 잘 가다듬어져 나오고 있고, 교과용 도서 중 교과서의 문장 역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1985년 2월에 나가는 중학교 2 학년 과학 교과서에 중요한 용어가 잘못 나가는 실수가 생기고 말았다.

지구의 역사 단원에서 중생대 부분에는 '겉씨식물이

우세하게 되었으나 중생대 말에는 상당히 쇠약해졌다.'는 설명이 있고, 신생대 부분에는 '중생대 말에 나타난 속씨식물이 번성하고, 풀이 평야를 덮게 되었다.'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생대의 겉씨식물과 신생대의 속씨식물이 바뀐 채 교과서가 발행되어 나간 것이다. 처음에는 바르게 되어서 진행되었는데 최종본 단계에서 겉씨식물은 나자식물로, 속씨식물은 피자식물로 한자어로 표기해야 한다고 출판사 담당자가 어디서 듣고 수정해 놓았다. 그런데 인쇄 직전 사식을 보면서 한자어인 나자식물과 피자식물을 원래대로 우리말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수행 과정에서 중생대 식물은 속씨식물, 신생대 식물은 겉씨식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과서가 발행된 후 알게 되었는데 70만 권의 책을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 난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는 내가 담당한 단원이어서 세 분 편수관께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몰랐다. 교과서라고 해서 틀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당시에 국정 교과서에는 오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내용에 오류가 생겼으니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올챙이 편수관은 첫해에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Ⅱ. 잠 설치던 자연과 편수 업무

자연과학편수관실의 과학과 업무는 네 사람이 전공별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을 나누어 맡았다. 그러나 네 과목의 내용으로 묶어 있는 자연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탐구 생활, 초등 학교 슬기로운 생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중학교 과학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네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과학 고등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등은 대표 담당자를 두었다. 나는 과학 고등 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대표 담당자로 지내고 있었는데, 문찬호 편수관께서 1988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전출한 다음에는 문찬호 편수관께서 담당하던 자연과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 근무하던 1994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에는 아직도 교과서가 바이블 같은 교재로 여겨지고 있어서 교과서의 중요성이 아주 크던 때였다. 지금은 물론 교과서가 학습에서 가장 주된 교재로서의 기능보다는 학습재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편찬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제 5 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개발되는 교과용 도서는 초등 학교 1, 2, 3 학년용과 4, 5, 6 학년용이 1 년간의 시차를 두고 개발되었다. 초등 학교 1, 2, 3 학년용은 1987년 4월에 편찬 계획이 수립되고, 동년 9월에 1 학기용 원고본을 제출, 심의를 거쳐 11월에 실험본이 제출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이 실험본은 1988년 3월에 현장 실험에 들어갔다. 물론, 6개월 차이를 두고 2 학기가 개발되어 이는 1988년 9월에 현장 실험에 들어갔다. 1988년부터는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의 대표 담당자가 되면서 더 많이 긴장하여 열심히 일했다. 이 때, 교과서는 국판 크기의 본 교과서와 처음으로 4×6 배판 크기의 보조 교과서가 도입되었다.

필자는 자연 교과 3, 4, 5, 6 학년을 담당하였는데, 처음 도입된 보조 교과서의 이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실험·관찰'로 도서명을 정하였다. 새로 도입된 '실험·관찰' 도서를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만들 것인가 성격을 정하는 일은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였는데, 70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학습 교재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밤잠을 설칠 때가 비일비재하였다.

심의할 내용과 심의한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밤늦게 일하였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데 따른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았다. 실험본을 개발하고, 현장 실험을 거쳐 다듬고 또 다듬어 1989년 3월에 전국의 모든 학교에 새로운 형태의 자연 교과서와 처음 도입된 '실험·관찰' 교과서가 배포되었다. 자연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첫 도입은 성공적이었고, 제 6 차와 제 7 차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에서 더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찬호 편수관께서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필자도 심의 회의록을 기록하였는데, 훗날 참고가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 흔적으로 보관하고자 회의록을 복사하여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서 바쁘기도 하지만 게으른 탓에 그 회의록을 교과서 개발이 모두 끝난 후에 읽어 본 적은 없었다.

Ⅲ. 우리말, 교과서에서 사라져 간다.

1993년 11월 조선일보에는 '우리말, 교과서에서 사라져 간다'는 제하의 지면을 상당히 할애한 기사가 났다. 크게 뽑은 타이틀의 첫 번째가 쑥돌이 화강암으로 표기된 것이었다. 그 내용을 후반부 약 1/6 정도만 생략하고 그대로 실으면 다음과 같다.

> 국민 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수백 종의 순수 우리말들이 1980년 이후 3 차례의 교과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슬그머니 폐기되고 있다. 우리말 연구가인 배우리 씨(55 세)가 지난 1975년부터 지금까지의 과목별 초·중등 교과서 2백여 권을 표본추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서에서 사라진 우리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백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씨는 조사·연구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쯤이면 이 같은 숫자가 1천여 개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 교과서는 우리말을 버리는 대신 주로 일본 연구 서적에서 그대로 베낀 한자 등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문의 연속성을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서도 한자로 된 전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측의 설명이다. 우리말 폐기가 가장 심한 부분은 자연 과목, 지질 단원에서 사용됐던 쑥돌, 변쑥돌, 횟돌, 모랫돌, 뻘돌, 자갈 등 고운 우리말이 화강암, 편마암, 석회암, 사암, 이암, 역암 등 생소한 한자에 밀려났다. 큰물, 뭍바람, 바닷바람은 홍수, 육풍, 해풍으로 변했다. 인체 단원에서도 샘창자, 막창자, 곧은창자 등 순수 우리말이 1981년 제4차 교과 개편 이후 십이지장, 맹장, 직장 등 한자어로 바뀌었다. 또, 밥줄은 식도로, 오줌길은 요도로 교체됐다. 큰골, 작은골, 숨골 등도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대뇌, 소뇌, 연수, 척수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뼈마디는 관절로, 피돌기는 혈액순환으로, 날름막은 판막으로 바뀌었다.
>
> 물론, 우리말 중에는 학문 용어로는 다소 적합지 못한 용어도 많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등에 해당하는 불에된바위, 물에된바위, 변해된바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말

을 밀어 낸 일본식 한자어 중에는 쓰지 않아도 무방한 단어가 적지 않다는 것이 우리말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식물 단원에서 식물이 해나 땅을 향해 굽는 성질을 일컫는 해굽성, 땅굽성이란 독창적인 우리말을 구태여 향일성, 향지성으로 어렵게 고치거나 입파랑이를 엽록소로, 얼개를 구조로 바꿀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후략>

이 기사에 대한 대책 및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현재, 자연과의 용어는 어문 정책에 따라 쓸 뿐만 아니라, 가급적 쉬운 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 국민 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생활 용어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4학년 이상부터는 학문에 바탕을 둔 한자어, 외래어 등의 용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연과의 인체 각 기관의 명칭에 관한 용어는 현재 작은창자, 큰창자, 허파 등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편시에는 대뇌는 큰골, 척수는 등골 등으로 우리말을 더 확대 사용하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여 일반화된 한자 용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데는 용어의 혼란, 표현 표기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국어연구소, 과학계, 교육계 등이 함께 연구·검토하여 풀어 나가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신문 기사에서 해굽성은 굴광성, 땅굽성은 굴지성이고 각각 향일성, 향지성은 아니다. 용어에 관한 질문, 항의 등은 편수담당자에게 전화, 문서 등으로 자주 보내진다. 차제에 과학 용어에 대하여 한 마디하자면, 1987년에 기존의 편수 자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같은 과학 용어도 화학 용어는 순수한 우리말로 표기된 것이 많고, 생물 용어는 한자어화되어 표기된 것이 많았다. 어문 정책의 변화와 체계적인 어문 연구가 부족한 당시로서는 스스로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국어연구소가 1987년인가에 생겨서 지금은 어문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Ⅳ. 잊혀져 가는 일들

시간과 더불어 흘러가면 많은 일들이 잊혀져 간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잊혀지기에는 너무 교훈적인 것들도 많다. 여기서 언급하려는 내용은 꼭 교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겠으나 편수담당자로서는 힘들었던 일을 몇 가지 적어 보려고 한다.

'자연'이라는 교과명은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생긴 이름이다. 교수 요목기에는 일본 교과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잇과'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그 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과학'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연'이란 이름은 정부 수립 후에 있었던 '자연 공부'라는 책명에서 유래되었고, 이는 서구의 'nature'라는 교과명에서 나왔을 것이다. 지금은 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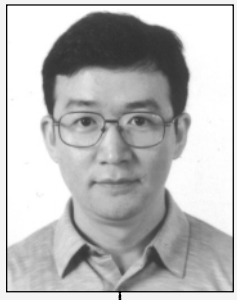
르겠으나 1980년대까지도 프랑스에서 7, 8 학년에 그런 이름이 남아 있었다. 사실 'science'가 자연 과학을 뜻하는 '과학'으로 쓰여진 것은 오래 된 것이 아니다. 19 세기 때까지도 '자연 철학'으로 불려왔고, 1895년 영국 신문인 Daily News는 Scientist(과학자)라는 신조어의 사용을 기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산수'가 '수학'으로 바뀔 때, '자연'도 '과학'으로 거의 될 뻔했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은 '과학'이 되었다. '탐구 생활'은 초등 학교 학생용 방학 중 과제장이었다.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거해서 1989년 이후 사용할 '탐구 생활'을 개편하였다. '탐구 생활'은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학책을 과학 위주의 내용으로 개편하도록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교육부가 방학책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임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발간을 중지하였다. 하지만 '탐구 생활'이 학생은 물론 국민의 과학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는 평가이다.

끝으로, 교과용 도서에 사용하는 삽화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너무 개발비가 적어서 우수한 삽화가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고, 그나마 헌신적인 몇몇 인사들 때문에 그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 교과서 한 권 값이 당시 보통 담배 한 갑 값도 안 되는 정도였으나, 편수관 및 교과서 개발 관련자들이 땀 흘린 덕분에 어느 정도 체계 잡힌 교과서가 되었다는 생각이며, 지금도 교과서 값이 너무 낮은 것이 좋은 교과서 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1984년~1994년 과학과 편수관〉

교과서, 편집자가 넘어야 할 산맥

■ 글 / **조준형**(천재교육 국어부 부장)



교과서와 학습 참고서 출판의 경험이 많으신 출판계의 선배님께서는, 교과서 개발을 학습물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맥'이라고 말씀하신다. 정말이지 학습 참고서 출판사에서 몇 년 동안 참고서를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 앞에 '교과서'라고 하는, 그 높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맥을 만나게 된다.

한두 차례 그 산맥을 넘어 본 편집자라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산세의 험난함을 알기에 교과서란 더욱 두려운 존재로 다가온다. 또, 모든 학습 참고서 편집자들이 교과서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는 출판사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그 산맥을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를 다행이라고 여길 수만은 없다. 출판계라는 험난한 무림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그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험난한 산맥에 비유되는 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 할지라도 검정에 통과하는 교과서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정에 합격시키지 못한 편집자라고 해서 편집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마냥 불행한 것만도 아니다. 어쩌면 교과서 검정에서 불합격의 경험을 해 본 편집자라야만 진정 편집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지도 모른다. 마치 인생에서 시련을 겪은 후에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Ⅰ. 교과서 개발의 새로운 변화들

아직 확정되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교육과정 개정 세미나나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보면, 이번 교과서 개발에서의 주된 변화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다. 가장 큰 변화로는, 그 동안 중등 교과서 가운데 국정 교과서로 개발되던 국어, 도덕, 국사 과목의 교과서들이 검정 교과서로 전환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 5 일제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업 시수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보다 실질적인 적용이라고 하겠다.

이 중에 국어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가

장 큰 변화는 국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 차례의 교육과정에 걸쳐 국정으로 개발되어 온 국어 교과서가 이제 검정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국어 교과서 검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지 긴장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국어 교과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 이전의 국어 관련 선택 과목인 문학, 작문, 독서, 화법 등을 개발할 때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선택 과목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영역 중에서 각각 하나의 영역만을 선택해서 다루었지만, 국어 교과서에서는 국어의 모든 영역(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이 다 포함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3개 학년과 고등 학교 1학년(7~10학년)에 걸쳐 학년별, 학기별로 그 위계성이 잘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체제가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처음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무엇보다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저자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 같다.

Ⅱ. 교과서와 교육과정

얼마 전 평가원의 교육과정 관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교과서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선생님 말씀대로 교과서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그 교과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교과서를 개발할 때 편집자들은 교육과정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게 된다. 성직자들이 경전의 참뜻을 알기 위해 읽고 또 읽어 외우듯이 편집자들도 교육과정의 참뜻을 파악하기에 온 정성을 쏟는다. 교과서만 봐도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교과서를 개발할 때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편집자들은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교과서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가끔 교육과정을 편집자와는 조금 다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저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편집자들은,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이 교과서의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따라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교과서가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저자들을 설득하게 된다. 물론, 이런 노력은 몇 차례의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깨달은 결과이다.

검정 제도의 장점인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실현하려면, 우선 교육과정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와 저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개발을 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평가원의 적절한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동안 교육과정의 엄격한 적용에 익숙했던 편집자들이나 저자들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Ⅲ. 연차적인 교과서 개발의 득과 실

지난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를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개발하였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3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없으므로

편집자들도 첫해에는 한 학년의 교과서에 집중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겠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과서 개발에 묶여 있어야 하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지도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등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교과서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1년마다 한 학년씩 개발하는 것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도에서였으며, 이러한 의도가 잘 살려져 질 좋은 교과서 개발에 공헌한 바도 컸다.

하지만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3년에 걸쳐 교과서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비의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저자들의 입장에서 봐도 첫해 1학년 교과서가 합격하고 나면 긴장이 늦추어지고 진이 빠져 2학년과 3학년 교과서 개발엔 자칫 느슨한 모습을 보이기 십상이어서 교과서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를 발생한다. 편집자들도 첫해에는 한 학년의 교과서에 집중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겠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과서 개발에 묶여 있어야 하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지도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등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교과서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이와 같은 식의 교과서 개발이 출판사의 현실이고 보면,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과서 개발에 국어 교과에서는 처음으로 연차별 교과서 개발이 시행된다. 연차적 개발은 국어 교과서 편집자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 학교 교과서가 동시에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유능한 저자를 많이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중학교,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과 문학, 독서, 작문, 화법 등의 교과서를 여러 출판사에서 계획하는 대로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저자들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많은 교과서를 개발할 편집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이다. 각 출판사마다 교과서 개발 경험이 있는 편집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편집 인력을 구하고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의 개정 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부분·수시' 개정 방식이 실제로 시행되면, 교과서 개발비와 시간, 노력 등이 보다 경제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싶다.

Ⅳ. 재검의 아픈 기억

재검 제도가 없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쉽기도 하다.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의 입장에서나 교과서 개발에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한 출판사, 그리고 교과서를 개발하느라 오랫동안 고생한 편

집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가 1차 검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재검정의 기회라도 붙잡아 교과서가 세상에 빛을 보게 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편집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격하여 백지 표지로만 싸여 있는 교과서 출원본을 보고 있노라면, 그 동안 바쁜 저자들을 그렇게 다그쳐 원고를 집필하게 하고, 조판소 직원, 사진기사, 삽화가 등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지나 않았는지, 마치 죄를 지은 듯한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진다. 당연히 회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상사분들 뵐 낯이 없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재검정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나마 위신이 서는 셈이다.

하지만, 교과서가 한번 학교에서 채택되면 교사들에게 익숙하게 되고 행정적으로도 새로운 교과서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게 된다. 실례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 학교 문학 교과서는 18종류의 교과서가 최종 합격을 하였다. 그 가운데 11종은 1차 검정에서 합격을 하였고, 나머지 7종은 재검정에서 합격을 하였다. 그리고 총 18종 가운데 재검에서 합격한 7종은 채택 첫해에는 선정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재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무늬만 교과서이지 학생들의 손에 들려 보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제 재검의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교과서는 앞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검이 사라진 자리에 보다 합리적인 교과서 검정 제도가 자리잡아 갔으면 한다. 100%에 가까운 검정 합격률을 보이면서도 적정한 교과서 종수를 유지하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에 본받을 것이 있으면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Ⅴ. 채택, 또 한 차례의 검정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고서도 채택이라는 또 한 차례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교과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단순히 수익으로만 보면, 제7차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인세를 책별로 동일하게 나누기 때문에 저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출판사도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교과서만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집필과 수정을 거듭하여 몇 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교과서가 불과 몇몇 학교에서만 사용된다고 할 때 그 상실감이란 참으로 크다.

교과서의 채택이 교과서의 질에 대한 평가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편집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전보다는 많이 공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출판사의 영업력이나 저자들의 학연 등이 교과서 채택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출판사를 보고 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교과서에 딸린 다양한 지도 자료나 자습서, 평가 문제집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출판사를 선정하는 것이 결국 원만한 수업 진행과 질 좋은 학습을 이끌어 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처음 교과서를 개발한 소규모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정해 수업을 해

보다가 교과서를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대체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Ⅵ. 교과서만으로 수익 구조가 가능해야

출판사의 경우, 교과서 개발비가 자체 수익금만으로는 충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참고서를 개발하여 판매해야만 하는데, 채택된 학생 수가 적은 경우 참고서를 만들어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오히려 아예 한 학교도 채택이 되지 않은 교과서는 부속 교재를 만드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중간하게 채택이 된 교과서의 경우에는 부속되는 자습서나 문제집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어, 손실을 뻔히 알면서도 참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그 동안 중·고등 학교의 국정 교과서로 남아 있던 국어, 국사, 윤리와 같은 교과서가 검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학습 참고서 출판사의 관심은 국어 교과서에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동안 영어 교과서를 합격시키지 못한 경우, 그 지문을 사용하지 못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문 의존도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국어의 경우, 합격한 교과서가 없을 경우에 참고서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격한 교과서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서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격인 교과서를 반드시 보유하기 위해 벌써부터 대부분의 참고서 출판사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합격한 교과서의 개발비는 어느 정도 보상된다고 하더라도 불합격한 교과서가 절반 이상 되는 현실에서는 합격한 교과서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으려는 출판사의 행동을 비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에서 교과서 개발만으로도 수익 구조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Ⅶ. 교과서 개발의 야릇한 중독성

학습 참고서 출판사의 편집자들은 교과서 개발 시기가 돌아오면 우선 걱정이 앞선다. 교육과정을 이해하느라 끙끙대고, 저자들과 씨름하느라 신경이 날까로워지기도 하고, 몇 달씩 밤을 새며 가정을 포기해야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몇 해 동안 감추어졌던 설레는 기대감이 움찔움찔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교육의 근간이 되는 도서를 개발한다는 자부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교과서 개발에는 어느 정도의 중독성이 있지 않나 싶다. 다른 참고서와는 다르게 오랜 시간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만든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사용될 때 느끼는 기쁨을 맛본 편집자라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또다시 그 어려움 속으로 기꺼이 자신을 밀어넣려고 할 것이다.

편집자의 이러한 설렘과 무모한 중독성이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저자들의 노력과 만나 새롭게 발전된 모습의 교과서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탐 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17)

최태경

-두산동아 사장-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교육 출판 업계의 선두 주자의 하나인 두산동아의 최태경 사장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1. 두산동아 하면 동아출판사의 동아전과가 떠오릅니다. 두산그룹이 동아출판사를 인수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두산동아의 경영 방침 등 회사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두산 그룹이 동아출판사를 인수한 것은 1985년으로 만 20년이 되었으며, 동아출판사의 교육 출판 전통을 살려 나가기 위해 두산동아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동아는 교육 출판을 통해 지식 정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업 철학 아래 회사 창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하는 국·검정 교과서와 동아전과, 백과사전을 비롯한 각종 사서류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전과의 대명사라 불리는 동아전과는 53년째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침이 심한 교육 출판계에서 수십 년간 선두 자리를 유지해 온 것은 부단한 경영 혁신과 함께 도전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컴퓨터 출판, 멀티미디어 사업, 전자책, e-Learning, 전자 사전 개발 등을 출판계에 앞장서서 도입한 것이 그 예입니다.

출판업은 사람 산업입니다. 직원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담당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 역량을 발휘할 때 고객을 감동시키고 지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을 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의 선발 과정에서 인성을 중시하고 어학, 마케팅 등의 소양 교육과 직무별 전문 교육에 역점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상장 기업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매분기가 끝날 때마다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어지간한 정보는 전 임직원이 공유합니다. 투명 경영은 직원과 고객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경영 방침을 하나 더 꼽는다면 자원과 역량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회사는 교육 출판 분야에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교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2. 두산동아는 지난 60여 년 동안 교육 출판 사업에 매진해 왔고, 특히 2003년에는 제1회 한국교육산업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교과서를 발행하면서 교육 현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라 교과서 시장과 출판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회사는 제1차 교육과정기 이래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여 발군의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2005년 현재 60여 개의 검정 도서 발행사 중 가장 많은 609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검정 도서 전체의 15%에 달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 교과서는 질적,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교과서 발행사 스스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교과서 제도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원화하는 지식 정보 사회에서 국정 도서의 단계적 검인정화는 시대적 대세라고 봅니다. 교과서 발행사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선 체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개선 체제를 구축하고 질 개선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발행사들이 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둘째는 전자 매체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의 수용입니다. 전자 매체가 교육 현장에 도입된 지 이미 오래며, 청소년들이 서책보다 전자 매체에 더 친숙함을 느낀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전자 매체가 인쇄 매체를 보완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쇄 매체를 대체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와 유통 문제만 해결되면 전자 교과서는 언제든지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사용 책수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 학교의 학생 수는 학년당 6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 년 후면 50만 명대로 낮아집니다. 사용 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고 질과 서비스를 고급화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과서 시장은 공교육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교과서 공급자와 사용자, 그리고 교육 당국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두산동아의 역점 사업 등 향후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 회사의 본령은 교육 출판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육의 범위가 학교 교육에서 평생 교육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또, 전자 매체의 발달은 업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출판의 서비스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출판의 미래는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 간에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해 나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회사는 비전을 '고객의 평생 교육과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회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점 사업을 교과서 사업군과 e-Learning, u-Learning 등에 대비한 신사업군의 두 가지로 정하고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조직을 확충하고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군은 교재 사업군에서 축적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백과 사전 서비스인 엔싸이버, 전자 사전, e-Learning 등이 이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4. 여러 교과서 발행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육성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에 동의합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교과서만 전업적으로 출판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핵심 역량을 가진 교과서만 선별 출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교과서 개발이 부정기적이며 국정 도서가 검인정 도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첫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며,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즉, 경쟁력이 떨어지는 교과서 회사가 도태되고 질 높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생산·공급하는 회사. 규모의 경영이 이루어져 재투자로 순환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전문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육성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상시적인 교과서 전담 조직을 운용하려면 막대한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데, 현재의 제도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판사는 교과서에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로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는 경영자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5. 현재 교과서 출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제까지는 검정 도서 사업은 개편 주기와 일정, 검정 심사 방침, 수익성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의 질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리스크 부담도 커집니다. 출판 사업은 예측 사업이며, 교과서 사업의 성패는 출판사의 생존을 좌우합니다.

교과서 개편을 추진할 경우에는 출판사들이 능력에 맞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반 정책 방침들이 사전에 고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기적인 검정제나 시장 논리 등을 도입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출판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업 보조 자료의 유통이 막혀 있어 교과서 발행사가 자비 부담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앞으로는 수업 보조 자료의 구매 예산을 단위 학교에 교부하고 교과서 발행사로 하여금 시장 기능에 맞추어 자유롭게 공급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검정 도서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과 리스크가 큰 데 비해 자본 회수가 늦고 수익률도 낮습니다. 출판사들이 초기에 투입하는 연구 개발비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투입하는 편찬 및 발행 관리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6. 바람직한 미래형 교과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두산동아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형 교과서는 정책 연구 과제로 추진된 모범 교과서와 일습형 교과서, 전자 교과서 등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체험 학습 권장 및 학력 결손 방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정보 활용 능력 증대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적용이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목별로 용도에 맞는 워크북과 시청각 자료를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켜 제공하고, 웹 기반 학습을 도입하면 이러한 당면 현안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서와 보완 교재들은 설계 당시부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과 교과서의 도입을 검토하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교과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회사는 미래형 교과서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 축적과 함께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가 보유한 각종 교육 콘텐츠와 DB, e-Learning, 전자책 사업 등은 미래형 교과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7. 우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서 정책 과제 연구, 교과서 연구지 발간, 출판 교실 운영, 교과서정보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과서 발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연구재단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평소 귀 재단에서 교과서 발행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 지원 사업을 대행해 주는데 대하여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지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잡지로서 의미가 크고, 교과서 출판 교실에는 폐사에서도 수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 제도 정책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교과서 발행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도 없고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수 자료의 간행은 귀 재단에서 맡는 것이 대의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교과서 연구 기관과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가져 유익한 제도나 연구 결과물이 있으면 국내에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사업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선진국과 우리 나라 교과서 간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 체제 등의 비교 연구, 전자 교과서의 사업 모델 연구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교과서 연구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대담 /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일본의 교과서 연구 센터

■ **자료 정리**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 설립 목적

일본의 교과서 연구 센터는 1976년 5월 31일자 문부대신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 센터의 설립 목적(제 3 조)은 '교과서 및 이에 관련된 교재(이하 교과서라 함.)가 학교 교육상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 관한 기초적·종합적 조사 연구를 행하며, 교과서 발행자에 대해 이들 연구의 성과물을 제공하고, 또한 교과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조성함으로써 교과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교 교육과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센터는 아시아의 게오르그 엑케르트라 불리고 있다.

2. 사업 내용

일본의 교과서 연구 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제 4 조)을 행하고 있다.

1. 교과서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교과서 도서관의 설치 운영
3. 교과서의 역할과 그의 위치에 관한 학술적 기초 연구
4. 교과서에 사용하는 용어 등 기초적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5. 교과서의 체제에 관한 조사 연구
6. 교육 기기와 교육방법 및 교과서 등과 관련된 조사 연구
7. 복식 교과서와 그 밖의 특별 교과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이들 교과서의 저작, 편집, 발행
8. 교과서와 관련된 저작권, 출판권 등에 관한 조사 연구
9. 교과서의 조사 연구에 대한 조성
10. 교과서를 통한 국제 이해의 활동
11. 교과서의 편집, 제조 및 공급과 관련된 자의 연수, 강습회 개최
12. 기타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조사 연구

주된 조사 연구는 조사 연구, 해외 조사 및 연구 조성 등으로 구분하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연구

○ 1977~1978 : 교과서 체제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 1979 : 해외 교과서 제도 조사
○ 1978~1981 : 일·미 공동 '사회과 교과서 프로젝트' 연구 실시
○ 1984~1986 : 교과서의 내용, 체제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 1986~1988 :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

○ 1989~1993 : 교과서 데이터 베이스 연구
○ 1992~1994 : '학습재'로서의 교과서 기능에 관한 기초 연구
○ 1996~2000 : 새 미디어에 대응한 교과서, 교재에 관한 조사 연구
○ 1997~1999 :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의 체제와 그 교육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 2000~2003 : 초·중 교과서 읽기·이해에 관한 조사 연구
○ 2001~2002 : 한국 교과서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 2002 : 중국, 독일의 교과서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2) 해외 조사

○ 1978~1980 : 미국·유럽 교과서 제도 및 용지 조사
○ 1977~1992 : 독일을 위시하여 34개국 교과서 제도 조사
○ 1989, 1971 : 동남 아시아 교과서 제도 조사(태국 외 5개국)

(3) 연구 조성

○ 1991 : 교과서 편집·교과서 연구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 1992~1994 : 초·중학교 산수·수학, 이과 교과서 언어 표현 연구

4. 문부과학성 연구비에 의한 연구 자료

○ 1986~1988 :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
○ 1992~1994 : '학습재'로서의 교과서의 기능에 관한 기초 연구
○ 1995~1996 : 교과서 제도 변천에 관한 조사 연구
○ 1997~1999 : 학교 교육에 있어 교과서 체제 및 그 교육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5. 연수 강좌

'현대 교과서 문제 강좌', '저작권 문제', '해외 교육 사정 강좌', '교과서 문제 세미나', '교과서 세미나' 등에 대해 1978년부터 해마다 연수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의 강좌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현대 교과서 문제 강좌에서는 '교과서의 사정' 등을, 저작권 문제에서는 '교과서 편저작에 있어 실무상 유의점', '저작권과 편집자' 등을, 해외 교육 사정 강좌에서는 '국제화 시대의 교육', '미국 교육 개혁의 동향' 등을 강의한 바 있다. 교과서 문제 세미나에서는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문제', '교육 개혁과 교과서' 등을, 교과서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교육과 교과서의 역할', '새 학력관과 평가' 등을 의논하였다.

6. 부속 교과서 도서관

일본에서 사용 중인 약 1,700점의 교과서를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1945년 검정제 실시 이후의 교과서 및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를 수집, 전시, 이용하게 하고 있다. 장서로 교과용 도서는 모두 10여만 책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마이크로피시,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이 상당량 있다.

7. 연구 센터 주소 등

(1) 우편 135-0015 東京都 江東區 千石1丁目 9番 28号
(2) 대표 전화 : 03－5606－4311, FAX : 03－5606－3044
(3) 교과서 도서관 전화 : 03－5606－4314, FAX : 03－5606－4392
(4) 홈 페이지 주소 : http://www.textbook-rc.or.jp/

연구재단 소식

✻ 전국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연구」지 무상 배포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를 제 44 호부터 발행 부수를 크게 늘려 전국 초·중·고등 학교에 한 부씩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하였다.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교과서연구」지를 읽고 교과서에 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집자에게 보내 주시면 「교과서연구」지에 실어 드릴 계획이므로 이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상반기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발행사 편집 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전문 지식의 습득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5년도 상반기에 교과서 출판 교실을 2 회 운영하였다. 그 동안 출판 교실에 참가해 주신 발행사의 직원과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맡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시기(인원) : 6. 1. ~ 6. 3.(24 명)
  6. 29. ~ 7. 1.(31 명)
- 운영 단위 : 3 일(21 시간)
- 하반기 출판 교실 운영 계획은 홈 페이지(www.ktrf.re.kr)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 교과서 발행사 편집 직원 산업 시설 답사 지원

○…우리 연구재단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고 있는 편집 직원 등 31 명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28일부터 29일(1 박 2 일)까지 울진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 시설 답사를 추진하고 교과서 편집 자료 수집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 교과서 오류 신고 센터 운영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수정, 보완할 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 6월 1일 홈 페이지(www.ktrf.re.kr)에 교과서 오류 신고 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 제 3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접수 마감

○…우리 연구재단은 제 3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를 2005년 6월 30일 접수 마감하였다. 마감 결과 초등부 104 편, 중등부 103 편, 고등부 118 편, 일반부 217 편 등 총 542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당선작은 심사 후 2005년 10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 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과목·출판사와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 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041) 861-3183 (ARS)	www.daehane.com	* 초등 학교 :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전체 과목(도덕, 사회, 과학, 실과, 예체능)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1, 2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공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15책, 2·1 체제
	(주) 교 학 사	(02) 7075-120	www.kyohak.co.kr	* 초등 학교 : 1~6학년 국어(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3학년), 국사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농업계, 상업계
	(주) 금성출판사	(02) 2077-8145	www.kseshop.co.kr	* 초등 학교 : 3~6학년 영어(영어 CD, 영어 TAPE 포함) * 중 학 교 : 생활 외국어 * 고등 학교 : 아랍어 I·II, 외국어계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02) 865-8225	www.eduaplus.com	* 중 학 교 : 도덕 3학년 * 고등 학교 : 가사 실업계 16책
	(주) 지 학 사	(02) 330-5302	www.jihak.co.kr	* 중 학 교 : 도덕 1, 2학년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체육계 3책, 과학계 10책
	(주) 천재교육	(02) 3282-8550	www.chunjae.co.kr	* 초등 학교 : 1~6학년 수학(수학, 수학 익힘책)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체육계 2책, 과학계 5책
	향우산업(주)	(02) 790-5947		* 고등 학교 교련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 빌딩 2층(6호선 망원역 부근)	(02) 3663-9120
대한교과서(주)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본사 1층) (7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 페이지(www.moe.go.kr) 참고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우)158-861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 빌딩 4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trf.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651-1950으로 문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뒤로 앞으로 중지 새로고침 홈 검색 즐겨찾기 미디어 기록 메일 크기 인쇄 편집 토론

주소(D) http://www.ktrf.re.kr 이동 연결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2002년 5월 6일 (월) HOME | 기관소개 | 교과서정보관 | 교과서연구지 | 교과용도서공급 | 자료실 | 게시판

운영 개요

- □ 우리 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2,523	5,311	27,834
일반 자료	2,231	–	2,231
계	24,754	5,311	3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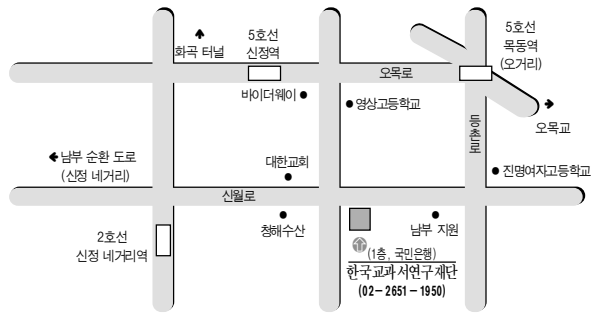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토요일	1~12월	09:00~13:00

*공휴일 휴관

교통편



- **전철** :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 5622, 5712, 602, 603, 640, 5630, 6614번

완료 인터넷